

<최종보고서>

현장경찰관의 근무 환경 및 행태 진단

2011. 11. 18

한국행정학회

제 출 문

경찰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현장경찰관의 근무 환경 및 행태 진단」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 연구기관 : 2011. 5. 12 - 2011. 11. 18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연구책임자 : 김 병 섭 (서울대)
 공동연구원 : 이 수 영 (서울대)
 박 동 균 (대구한익대)
 오 시 영 (순천대)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3
II. 서울 강남 경찰서 역삼 지구대 참여 관찰 -----	5
III. 대구 수성 경찰서 형사과 참여 관찰 -----	22
IV. 전남 순천 경찰서 경비교통과 참여 관찰 -----	39
V. 일선 경찰관의 근무환경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57
1. 조직 외적 근무환경 및 행태 측면 -----	58
2. 조직 내적 근무환경 및 행태 측면 -----	61
VI. 결 론 -----	87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경찰은 2010년 말 서울에서 개최된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G-20 Summit) 라는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를 완벽한 경비 임무 수행을 통해 안전하게 치러 냈다. 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 경찰의 능력만으로 완벽한 안전을 확보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4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485건으로 나타나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세계적으로 매우 안전한 치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낮.밤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10만 여명의 경찰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치안 성과는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경찰 서비스의 가장 직접적인 소비자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한 높은 성과와는 상반되게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치안은 1등이지만, 경찰은 꼴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의 수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직도 차가운 편이어서 2010년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민원만족도평가에서 20개 외청 중 16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찰의 불친절, 불공정, 신속하지 못한 일처리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0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부패실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극히 일부의 경찰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위반 행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유형의 공무원 중 경찰관들의 비리 또는 부패 연루 소식을 상당히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경찰관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수행하지만, 소수의 부정적인 행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집중적 관심을 받음에 따라 민생 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성실히 매진하는 다수의 경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도 다수의 비리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이 비리나 범죄를 행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지만, 경찰 조직은 10여

만 명의 구성원을 가진 매우 거대한 조직이므로 수천 명으로 구성된 다른 정부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리나 부패 관련자가 더 빈번하게 적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청은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시책의 실시로 전년('09년도 조사 결과 7.48 점, '매우 미흡')에 비해 0.72점 정도가 호전된 8.30점을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일선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경찰, 형사, 교통경찰 등의 현장 경찰관의 근무실태 및 행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알림으로써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찰의 노고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긍정적인 공감대는 현장 경찰관의 근무여건 및 환경과 보수체계 등에 대한 개선 노력, 경찰 권위에 대한 존중 등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경찰관의 사기를 증진시켜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경찰관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를 대상으로 국민들과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경찰의 3가지 중요 기능인 형사, 교통, 지구대 활동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근무 환경과 여건, 업무 내용, 민원처리 행태 및 과정, 민원인의 양태, 근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근무 여건과 처우 및 환경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 분석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의 근무 체계, 근무 시설, 운용 장비 등 기본 근무 환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근무 환경이나 시설이 민원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근무 환경과 권총 같은 장비의 착용이 경찰관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였다. 또한, 불규칙한 근무일정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생활패턴 변화 및 부부 간 대화 부족 같은 가정 내 갈등 상황도 분석하였다.

2) 현장 경찰관의 근무실태 및 행태 분석

일선 경찰관의 근무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업무의 질적/양적 분석, 야근과 긴장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피로 등에 대한 분석,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신체적 사고에 대한 부담 파악, 업무 처리시의 관행 파악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선 경찰관의 민원처리 과정 및 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주취자 혹은 피의자의 욕설 및 고성 등 민원인의 태양에 따른 업무처리 곤란성 파악, 일선 경찰관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수용도 분석,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간의 사건 처리 절차 비교 분석,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인계된 후 민원인의 행태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타 관심 연구 내용으로 일선 경찰관의 경찰 조직에 대한 내부적인 개선 요구와 일선 경찰관이 국민에게 바라는 요청 사항 등도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3) 기능별 연구 내용 및 범위

위의 연구 내용들을 일선 경찰의 주요 세 기능인 지구대, 형사, 교통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대 및 파출소의 경우,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밤을 새워가며 치안 유지에 힘쓰는 일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등 민원 처리, 각종 제조사, 범죄예방 순찰, 경범 단속, 지시사항 처리 등의 과정과 그 과정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형사 기능의 경우, 경찰서 형사 당직반의 형사 사건, 지구대 동행 사건, 변사 사건, 화재 사건 등의 처리 과정과 관련 행위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하였고, 교통 기능의 경우, 시민의 출근 시부터 귀가 시까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도로위에서 근무하는 교통 경찰관의 교통 소통, 음주 단속, 교통사고 예방 활동 등의 처리 과정과 관련 행위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교통 기능의 경우, 물적/인적 피해가 수반되는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 같이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쌍방과실 사건의 처리 과정과 관련 행위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표본)의 선정

이 연구는 일선 경찰관의 근무 환경 및 행태 분석이 주목적이므로, 치안 서비스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경찰서의 교통 및 형사 담당 경찰관과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인력, 시간, 비용 측면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고, 대표성 있는 표본 경찰서를 3곳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경찰관 1인당 112 신고건수, 5대 범죄 발생건수, 교통단속실적 등과 같은 참고 자료를 토대로 지역 여건 및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전국에서 3곳의 경찰서(및 소속 지구대)를 연구 대상 경찰서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연구 표본들이 전국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표성(예: 수도권, 영호남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계층별 대표성(예: 광역/기초 지자체 등)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 강남 경찰서, 대구 수성 경찰서, 전남 순천 경찰서가 연구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2) 연구 방법

위와 같이 선정된 세 곳의 연구 표본 경찰서에 연구원과 연구 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 연구팀을 각각 배정하여 약 두 달 간 총 150시간 이상 현장에서 일선 경찰관들과 같이 야근을 포함한 동일한 근무를 하며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경찰관과 민원인의 행태 등에 대하여 관찰과 체험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현장체험, 관계자 인터뷰(interview) 등의 방법론을 통해 사례위주로, 또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적 접근에 의해 획득된 자료 및 그에 대한 내용 분석, 각종 통계 자료, 연구 보고서, 정책 자료집, 신문/방송 기사 등을 토대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기법을 이용하여 치안 서비스 현장의 상황, 일선 경찰관의 애환과 목소리를 직접 생생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경찰서 별로 배정된 각 연구팀이 앞에서 언급한 대민 접촉이 가장 빈번한 일선 경찰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인 형사, 교통, 지구대의 업무 및 근무 상황을 모두 직접 체험하였는데, 아래에 첨부된 참여관찰 결과 보고서는 내용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표본 경찰서별로 한 가지 기능에 집중하여 작성되었다. 즉,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구대 기능에, 대구 수성 경찰서는 형사 기능에, 전남 순천 경찰서는 교통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일선 경찰관의 업무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근무 양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관찰이라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록하였다. 참여관찰 방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구성원과의 상호신뢰 관계

(rapport)가 형성될 만큼 충분한 장기간의 체험과 관찰이 요구되지만, 본 체험은 시간적인 그리고 안전상의 한계로 인해 그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직접 체험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민원인이나 경찰관의 입장이 아니라 행정학자라는 제 3자적 시각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일선 경찰관의 업무 내용, 근무 환경, 애로 사항, 고단함 등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I. 서울 강남 경찰서 역삼 지구대 참여 관찰 및 이슈 정리

○ 이 체험은 201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몇 주에 걸쳐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실태 및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역삼, 논현1, 청담 등의 지구대들을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그 때 직접 참여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아래의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의 야간 근무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여 가감 없이 소개함으로써 평범한 일선 경찰관이 어떠한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국민과 국가에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부 문제 있는 경찰관들과는 달리, 대다수의 일선 경찰관들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매일 매일 사건과 부딪치며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인 강남은 광범위한 지역과 폭주하는 치안수요로 인해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관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논현 1, 2파출소, 삼성 1, 2파출소, 청담파출소, 신사파출소, 압구정파출소, 역삼지구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역삼지구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로 알려져 있어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를 체험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표본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또한 주말에 치안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도 금요일 저녁에 체험을 실시하기로 한 이유이다. 역삼지구대는 강남역, 역삼동, 선릉역 등 강남의 대표적인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주택가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는 지구대로, 총원이 52명이고 4개의 순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순찰팀은 10-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일에 한 번씩은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담당하고 있다.

○ 야간 근무 시작 1시간 전인 저녁 7시,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 담당 경찰관들은 이른 저녁을 먹고 출근한다. 체험자가 경험한 역삼지구대는 우리나라 경찰 소속

지구대 중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좋은 곳이다. 강남구청이 관할 구역 내의 CCTV를 관리하는 센터 건물을 새로 마련했는데, 같은 건물에 역삼지구대가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건물은 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어서 1층에는 역삼지구대와 강남구청 CCTV 통제 센터가 있고, 2층에는 별도의 휴식 공간, 탈의 공간, 식당 등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지구대 건물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파출소나 지구대는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주 쉽게는, 자기 지역의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 건물과 주민 센터 건물을 비교해 보면 경찰관서의 건물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불필요하게 청사 건물을 최신식으로 번듯하게 건설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혈세를 낭비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경찰은 예산이 부족하여 지구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건축된 지자체 건물(예: 주민 센터)에 공간을 빌려서 입주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이 현실적으로 지자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퇴근하는 저녁 6시 이후에)임을 감안하면 서로 공간 협조나 편의 제공 등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궁극적으로 양자 모두 국민의 안녕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추구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까 생각해 보았다.

<Issue 1> 피해자/피의자 분리도 어려운 낡고 협소한 지구대 청사

본 체험자는 논현1, 청담 지구대 등도 관찰하였는데, 대부분의 지구대는 청사가 낡고 공간이 부족했다. 그 결과 피의자/피해자 대기 장소조차 너무나 협소하여 양자가 충분히 분리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자의 충돌로 인한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돌발적인 상황은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사 시설 확충을 통해 시급하게 예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낡고 협소한 청사는 경찰관이 야간근무 중 규정상의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안 서비스의 질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 정책제언 17 - 청사 노후화 및 사무실 공간부족 문제

○ 야간 근무를 시작하기 전, 지구대 대장과 팀장의 그 날 업무와 관련된 전달사항이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오늘도 근무 중 관내 유흥업소 같은 단속대상 업소와의 개인적인 전화 연락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지시였다. 괜히 미리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오해나 단속 대상 업소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을 받고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업무와 관련해서 지구대 전화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기록해 두고 본인 휴대전화로는 그런 업소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유착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궁여지책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경찰이 치안 및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관련 전화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다. 소수의 문제 있는 부패 경찰 때문에 경찰 전체가 부패 집단으로 의심받고 매도되어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경찰이 처한 현실이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 주고 열성적으로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이 있을 때 더 힘을 내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러한 지시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법으로 생각되었다. 경찰 조직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국민과 경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선 경찰관을 불신한다는 인식을 심어 놓고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임해서 성과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었다.

<Issue 2> 내 아이는 엄마, 아빠가 경찰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까?

체험자가 만나 본 일선 경찰관들은 본인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고생하는 일선 경찰들의 진심을 몰라주고 알아줄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 기운이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찰관도 있었다. 모든 조직에는 소수의 문제아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들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 정책제언 1 - 일선 경찰관의 자부심 문제

○ 오늘 야간 근무를 담당할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개 조 2명은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를 하면서 112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을 담당해야 하고, 5대의 순찰차는 각 2명이 조를 이루어 운행해야 하므로 팀장을 제외하고 최소 12명의 인력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자를 뺀 나머지 팀 전체가 팀장을 포함해서 11명이므로 인력이 부족해서 4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야간 근무를 탄력 근무라는 명목으로 사이사이에 추가로 더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찰 업무와 112신고 출동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 오늘은 다른 팀에서 3명이 탄력 근무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쉬고 싶어도 지구대 사정상 마음대로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교육을 가고 싶어도 근무 여건 상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한 명이 쉬거나 교육을 가버리면 나머지 동료들이 자기 일에 추가해서 그 동료의 몫까지 더 해야 하므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으로 보였다. 어쨌든 오늘은 야간 근무를 지휘하는 팀장, 순찰차 5대 10명, 112 상황 2명해서 총 13명이 야간 근무에 임했다. 오늘 야근을 담당하는 순찰팀은 2인 1조의 5개 조인데, 지구대에 소속된 순찰차 5대를 이용하여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진 담당구역을 순찰하면서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응하여 출동하는 일을 담당한다. 오늘 본 체험자가 같이 근무할 순찰조는 경력 11년의 경장과 경력 2년의 순경으로 구성된 근무조이다.

○ 저녁 8시 본격적인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다. 야간 근무는 크게 두 가지 업무가 주를 이룬다. 2시간 간격으로 순찰차를 이용한 주기적인 순찰과 112 신고 대응 출동이 그것이다. 각 순찰차는 2인 1조가 되어 1시간 50분 순찰하고 난 후 10분간 휴식 및 순찰 일지를 정리하는 형태로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순찰 중 112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찰 입직 2년차인 순경은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의욕, 활력, 정의감, 사명감, 자긍심에 차있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이 된 것에 만족해 하냐고 물으니 “본인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에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이와 달리 선배 경장은 “나도 과거에는 저 순경같이 저렇게 의욕에 차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경찰로 살아가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으로 인한 사회적 선입견, 부정적 인식, 스트레스 등으로 점차 의욕을 상실하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저 후배가 경력이 쌓였을 때는 지금과는 달리 선진국처럼 경찰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감이 높아지는 시대가 와야 할 텐데 라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열심히 일한 만큼 사회가 인정해 주어야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가 닥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경찰들이 초심

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신나서 근무할 텐데 라고 생각해 보았다.

○ 2명의 경찰관과 한 조를 이루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순찰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선 경찰관과 똑같이 삼단진압봉, 수갑(안전상 권총과 전기 충격기는 제외함)을 허리에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였다. 주말이지만 아직은 초저녁이라 순찰이 주 업무이고, 시간이 갈수록 112 신고 대응 업무가 많아진다고 이야기한다. 탑승한 순찰차는 아반떼 급이었는데, 앞좌석에 2명이 탑승하고 뒷좌석에 1명이 탑승하니 공간이 상당히 좁다는 느낌이 들었다. 관할 구역 순찰 중 저녁 8:50 경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출동 중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무전을 받고 원래 순찰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동승한 경찰이 “순찰이 경찰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야간에는 112 신고가 너무 폭주하여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은 꿈도 꾸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가한 지금 시간대에 순찰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Issue 3> 요즘 명필은 붓을 나무란다 - 첨단 장비가 범인을 잡는다

지구대 경찰관은 38구경 권총, 삼단진압봉, 전기 충격총, 수갑 등을 허리에 휴대하게 되어 있는데, 무전기까지 합하면 총 7kg 정도를 휴대하는 셈이다. 본 체험자는 안전상 권총과 전기 충격총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을 허리에 휴대하고 순찰 업무에 임했는데,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목, 어깨, 허리까지 아주 빠근해지고 온 몸이 저린 것 같은 느낌이 심하게 들었다. 지구대 경찰관이 매일 이 장비들을 몸에 지니고 순찰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비를 좀 더 가볍고 첨단화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정책제언 18 - 경찰관 장비 문제

○ 밤 9:15 경 순찰 중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의 번호판에 반사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여 확인했다.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의심스런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 이것을 조사하는 것도 순찰의 중요한 업무이다. 자동차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고, 번호판에 CCTV나 카메라 촬영을 방해하는 테이프를 붙였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자동차 주인을 수소문하니 주위 업소의 손님으로 업소 종

업원이 발레 파킹을 해놓고 단속 카메라를 회피할 목적으로 테이프를 붙여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 강남경찰서 경제과에 처리여부를 문의하고 훈방조치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주의를 주고 훈방 조치했다. 주말 밤의 강남 유흥가 골목은 자동차 홍수였다. 골목길마다 유흥업소 손님들의 차량을 발레 파킹해 놓은 관계로 순찰차가 쉽게 지나갈 수가 없었다. 요리조리 곡예 운전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지나가기 일쑤였다. 이면도로 주차 문제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보니 순찰차도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112 신고에 즉각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범죄 예방과 관찰까지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이것 역시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골목길마다 가득 차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해가며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와 동시에 순찰 및 관찰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였다. 밤 9:50 경 지구대로 귀대 후 순찰 일지를 정리하고 10분 간의 짧은 휴식을 취했다.

○ 밤 10시부터 다시 순찰을 시작하였고, 순찰 중 밤 10:30 경 폭력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다른 팀의 지원을 위해 이동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지원이 필요할 만큼 큰 사건은 아니어서 다시 순찰 업무에 복귀했다. 폭력 사건 신고의 경우 경찰관도 사람이므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폭력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심한 경우 조직 폭력배가 연루되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찰 중인 동료 경찰관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조직 폭력배의 경우 강남경찰서 강력팀이나 형사팀에서 주로 처리하지만, 112 신고가 일단 접수되면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이 우선적으로 무조건 출동해야 한다고 한다. 조직 폭력배뿐만 아니라 취객들도 공격적이기는 마찬가지이고 사회가 각박해지고 생활고나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이 많아짐에 따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Issue 4> 우리도 다칩니다 -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

경찰청의 치안통계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2010년 기준으로 총 579,751건이 발생하여 거의 1분에 1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1,252건으로 약 7시간마다 1건씩, 폭력은 292,466건으로 약 2분

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경찰관의 업무 환경은 위험 그 자체이다. 이런 위험한 근무 환경 속에서 “나는 경찰이다. 제복 입은 값을 해야 한다”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용기를 내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이다.

⇒ **정책제언 26 - 경찰관 안전 문제**

○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일선 경찰관도 월 4시간의 무도 교육과 1년 2번의 사격 평가와 4번의 사격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교육을 감으로써 생기는 업무 공백이 고스란히 동료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Issue 5> 피곤해도 공부해야 산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선 경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기적인 무도 교육과 사격 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과중한 업무, 밤샘 근무 및 그에 따른 피로, 인력 및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기적인 야간 근무라는 피곤한 근무 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으로 인해 휴식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교육이 경찰관 자신 보호 및 국민 보호라는 의도했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였다.

⇒ **정책제언 3 - 경찰관 교육제도 문제**

○ 도로 순찰 중 밤 11:05 경 수상한 택시를 발견했다. 경기도 택시인데, 젊은 여자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 택시가 제대로 순조롭게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길가에 정차를 지시하고 다가가서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없고 단지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그런 것으로 판단되었다. 길 안내 후 귀가 조치했다.

○ 밤 11:15 경 지하철 역삼역 구내에 주취자가 승강장에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드디어 주말 주취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나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주취자가 승강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다른 승객이 112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역무원이 우리가 출동하는 사이에 먼저 발견하고 깨워서 귀가시켰다고 하였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었다. 순찰차로 돌아오던 중 역 구내에서 외국인(일본인)이 르네상스 호텔로 가는 길을 묻는다. 다행이 눈치로 르네상스 호텔을 찾고 있다는 것은 파악했는데, 일본어를 못하므로 영어와 손발짓을 이용해서 역지로 설명해 주었다. 최근 들어 한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찰 중 외국인을 자주 만나고 도움 요청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였다. 경찰관들에게도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 거주민도 많아지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찰관의 외국어 교육도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근무로 인해 소집 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싶어 확인해 보니, 이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언어별, 수준별 547개의 사이버 강좌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바쁜 업무, 밤샘 근무, 그리고 그로 인한 피로 등으로 인해 이러한 좋은 강좌들을 제대로 이용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선 경찰관의 현실 근무 환경이 문제였다.

○ 밤 11:38 경 강남역 뒤쪽에서 주취자가 고성방가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으로 출동했다.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혀서 접수 후 25분 정도 걸려 겨우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술집 앞 빌라에 사는 50대 남자분이 자기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젊은 남자 3명에게 “여기서 흡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고 다리에 피가 나게 해놓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신고하면 빨리 와야지 다 도망가고 나서 와서는 뒷북치고 있다”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 이 피해자는 전에 경찰청장이 112 신고를 받으면 5분 안에 출동하겠다고 큰 소리쳐 놓고는 이렇게 늦게 현장에 출동하면 어떻게 하냐고 꾸짖는다. 서울 강남의 주말, 더욱이 사람과 차가 최고조로 몰리는 밤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15분은 최선을 다한 출동이라고 생각한다. 밤 12:15 경 어쨌든 피해자를 진정시켜 지구대로 이송하고 서류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관계자가 피해자 1명이므로 서류 작성이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어저께 처리한 22명이 연루된 도박 사건의 경우 서류 작성에만 5-6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전산 시스템이 구비되어 많이 간소화되고 빨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서류 작업은 다른 순찰 활동을 중지시키는 큰 장애물인 것처럼 느껴졌다. 획기적

인 대안이 있다면 본연의 업무인 순찰을 더 강화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다.

○ 아까 녹장 대응했다고 따지시던 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10분간의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순찰차에 다시 올랐다. 새벽 12:15 경 관내 카페 입구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해 보니 신고자가 119에도 신고를 해서 소방서에서도 구급차가 출동을 했다. 확인해 보니 술이 취해 누워 있는 것이었고, 그 가게 주인으로 밝혀졌다. 깨워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정신 차리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 분은 다행히 술에 취해 누워 계신 것이었지만, 현장에 출동해 보면 누워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누워 있는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찰관에게도 이러한 상황 판단을 위한 응급 의료 기본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새벽 12:35 경 성매매 업소 신고가 접수되어 순찰차 3대가 동시에 출동한다. 성매매는 강력 범죄에 속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순찰차가 3대나 동시에 출동한다고 했다. 현장 확인 결과 신고자가 연락두절이고 별다른 의문 사항이 없어 상황을 종료하고 순찰에 복귀했다. 성매매 업소 신고는 현장을 덮치거나 신고자가 나타나서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난감하다고 한다. 업주는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니 특별한 증거나 증인도 없이 조사를 계속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유흥가와 서비스 업소가 많은 지역이라 이런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데 허탕을 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체험 시작 후 처음으로 강력 범죄가 접수되어 잔뜩 긴장하면서 출동했는데 허탈해 지면서 야근으로 인한 피로가 갑자기 몰려왔다. 날이 바뀌면서 몸도 점점 힘들어져 갔다. 동승 경찰관에게 피곤하지 않냐 물으니 “어느 정도 야간 밤샘 근무에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한다.

○ 새벽 1:20 경 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어 술집으로 출동했다. 종업원 2명이 피해자이고, 손님인 4명의 남자가 피의자이며, 목격자도 3명이 확보되었다. 순찰차 3대에 나누어 타고 지구대로 이송하여 서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1명은 팔이 골절된 것 같다고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호출하였다. 확인 결과 골절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의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차례로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 4명 중 한 명은 술 취한 상태에서 너무 난동을 부려서 보호 차원에서 수갑을 채워 이송했는데, 지구대 도착 후 풀어 주려하자 그냥 놔두라고 떼를 쓴다. 또 다른 한 명은 미란다 원칙을 다시 한 번 고지해 주는데도 전혀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하고 지금도 못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억지를 쓴다. 본인들이 마치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최근 와서 잘 확립되고 보호되면서 솔직히 경찰은 업무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 검문이나 임의 동행의 경우 거부해도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인권 의식과 법에 대해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는 공권력이 과거처럼 권위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민주화나 인권 개념을 오해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시나 대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술 취해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사람들이 제복 입은 일선 지구대 경찰에게는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다가도 경찰서 형사과로 이송되고 나면 고분고분해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제복 입은 경찰은 무시하고 제복 안 입은 경찰은 존중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그러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있던 피의자들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었다. 역삼지구대 같이 공간이 넉넉한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낙후되고 공간이 비좁은 다른 지구대의 경우 빈번하게 생기는 상황일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까지 총 9명이 연루되어 있어 1시간 20분 걸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새벽 2:40 경 강남경찰서로 이송했다. 2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규정상의 1시간 휴식 시간은 업무로 인해 그냥 지나갔고, 이 시간이 되면 몸과 정신이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은 조사받은 후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본인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고 편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관실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정당한 조사과정을 통해 불편부당한 조사를 한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진정과 민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조사활동을 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경찰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은 당연히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가치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실질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경찰관이 민원이나 진정 등으로 인해 소신 있는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어떤 경찰관은 “내가 사랑하는 경찰 조직이 나를 믿지 않고 무조건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조직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Issue 6> 술 취했다고 하면 다 용서??

본 체험을 통해 일선 경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느낀 점 중의 한 가지는 술 취한 주취자와 관련된 업무가 일선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점이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분기에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검거된 주취자는 1689명에 달한다고 한다. 매일 21명 정도의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셈이다. 주취자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서 술 취해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이해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정책제언 22 - 주취자 문제

○ 새벽 2시경 폭력 사건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이 폭주해서 13명 팀원 중 7명이 사건 처리에 매달리게 되면서 서류 작업을 하느라 주기적 순찰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 이 경우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혼자 출동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2인 1조로 출동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위험하지만 혼자 출동한다고 한다. 또한 이 경우 당연히 112 신고 대응이 지연되어 해피콜 평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업무가 많은 강남은 늘 꼴찌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강남이 업무가 많다는 것과 관련하여, 과중한 업무로 늘 바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한가한 지역의 경찰관이 동일한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Issue 7> 경찰도 생활인이다

보수 체계는 대내적 및 대외적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능력과 실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 구조로 설계되어야 구성원의 사기를 유지하면서 충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외적인 공평성 측면에서公安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보다 직급별 평균 약 5% 정도 기본급을 우대받고 있는데, 경찰은 대표적으로公安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안직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대내적인 공평성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 양, 질 등에 대한 차별적인 고려 없이 동일 계급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제언 15 - 경찰관 보수 및 수당문제**

○ 새벽 2시 20분 경 택시 한 대가 지구대 앞에 정차했고, 50대 기사와 30대 중국인 남자로 보이는 외국인이 함께 지구대로 들어왔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통역을 구해야 하는데, 이 새벽 시간에 연락할 곳이 막막해 보였다. 할 수 없이 본 체험자가 통역을 하기로 하고 기사의 진술을 들어보았는데, 이 외국인이 택시비 3만원을 못 내겠다고 해서 지구대로 온 사건이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는 가장 빠른 길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승객은 기사가 일부러 빙빙 둘러서 왔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승객은 기사가 둘러서 왔다는 증거로 해변을 보았다고 하면서 바닷가까지 갔다가 온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 해변이라는 것이 한강 옆의 강변도로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 외국인은 막무가내이다. 한 술 더 떠 기사가 자기에게 해코지 할 것 같다고 울려고 한다. 어이가 없지만, 택시기사에게 양해를 부탁하고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하여 두 분 다 귀가시켰다.

○ 폭력 사건을 강남서로 이송한 직후인 새벽 2:50 경 휴식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 신고로 출동하였다. 강남역 인근은 주말 새벽 1-2 시경이면 회식과 모임을 끝내고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심할 때는 수백 명이 갑자기 강남대로 양 옆으로 쏟아져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승차거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강남역에서 경기도 쪽으로 가자고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기사가 서울 택시는 경기도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승객과 실랑이가 생기는 경우이다. 2009년 서울시가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경우 적용되던 20%의 시외요금 할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서울 택시들이 그 시간에 일부러 멀리 경기도까지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이들 경기도로 운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서울 택시들은 현행법상 승차거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승차거부 문제는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단속해야 할 업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승차거부 문제를 위해서 시청에서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민들은 이런 일이 생

기면 무조건 112에 신고한다고 한다. 일단 112 신고를 받으면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폭행이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승차거부 신고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한다. 오늘 신고 받은 사건 역시 현장에 와보니 경기도로 운행하지 않겠다고 택시기사와 가차고 하는 승객간의 분쟁이었다. 경찰이 이 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이나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아 승객에게는 이 문제는 경찰이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양해를 구하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상황을 종료하였다. 무분별한 112 신고로 인해 순찰과 범죄 예방이라는 중요한 경찰 본연의 업무가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시외요금 할증제도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승차거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싫든 좋든 경찰력이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승차거부 업무만 확실하게 시청이나 구청에서 처리해 준다면 경찰의 업무 부담은 상당히 감소되어 다른 중요한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Issue 8> 만능 가제트 팔 경찰, 할 일이 너무 많다

본 체험을 통해 느낀 사실 중 하나는 "일선 지구대 경찰이 담당하는 사무에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점이다. 구청, 시청, 소방방재청 등이 관할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와 관할 영역이 불분명한 업무 그리고 관공서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들은 모두 경찰의 관할 업무인 것처럼 보였다. 특히 국민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주야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112로 신고를 한다. 본래 관할 업무가 아닌 다양한 상황 및 사건 처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순찰 인원이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본연의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업무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 **정책제언 23 - 업무 관할 문제**

○ 새벽 3:30 경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여관에서 자살한 변사체 신고였고, 그 처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는데, 본 체험자는

처음으로 보는 변사체 처리 과정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죽은 현장을 처음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그 검시 및 수습 과정을 경찰 체험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확인했다. 물론 다른 경찰관들은 목을 매거나 음독자살한 변사체는 살인 사건, 투신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변사체의 참혹함에 비하면 나은 것이라고 했지만, 그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의사가 와서 사체를 수습하여 서울의료원 영안실로 운송하여 거기서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는 명확하게 자살이라는 결론이 났다. 경찰관은 직업적 특성상 일반인과는 달리 빈번하게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견디어낼까 하는 존경심 같은 것이 들었다. 외국의 경우 이렇게 변사 사건을 한 건 처리하고 나면 해당 경찰관은 전문가와의 정신/심리 상담 같은 것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 처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경찰도 일부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전면 실시를 기대해 본다.

○ 새벽 4시 30분 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와 피해자를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이송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관이 운전해서 경찰서로 가져 가야 하는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것은 무보험이므로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분이 대리 운전 비용이 없어서 음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없이 직접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장애인 아이가 있는데 내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울면서 선처를 부탁한다. 자식을 가진 같은 부모로 참 가슴이 아프고, 멍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같이 출동한 경찰관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때면 이런 갈등의 순간을 자주 직면하게 되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회의도 든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무조건 눈감아 주고 싶다. 하지만 직업이 경찰이라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은 형평성 있게 집행 되어야 하므로 눈물을 머금고 법대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경찰관은 대신 일단 택시타고 귀가하신 후 내일 다시 와서 조사받으시라고 하면서 약간의 택시비를 쥐어 드리는 것으로 보였다.

○ 새벽 5시 경 재물손괴 사건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다. 술집에서 술 취한 손님과 주인 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술 취한 손님이 주인과 기물을 밀치는 바람에 주인이 신고를 한 것이다. 지구대로 이송 후 조사를 하는데 주취자인 손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한다. "담뱃불을 내놔라", "경찰관,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왜 반말을 하느냐", "내 말은 왜 하나도 안 들어 주느냐" 등등 난리를 쳤다. 다시 느꼈지만 술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 특히 지구대 업무의 절반 이상은 주취자와 관련되는 사건으로 보였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만 없다면 경찰의 업무 부담은 급감할 것이고 주어진 자원과 인력으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주취자 문제가 감소한다면 이와 관련된 범죄나 사건도 급감할 것이다. 서류 작성하여 5:45 경 경찰서로 이송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다.

○ 아침 6시를 지나 7시가 되면서 112 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술 먹고 나오면서 싸워서 지구대로 오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접수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오늘 야간 근무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았다. 밤새도록 지속되던 긴장이 풀어지면서 몸이 갑자기 피곤해져 왔다.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머리로 몽롱해졌다. 같이 근무한 경찰관은 "야근을 마친 오늘도 아이들이 학교로 등교한 다음 집으로 퇴근할 것 같다"고 한다. 아이들이 아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직업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빨리 와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경찰관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한다. 이런 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 자신같이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일선 경찰관은 큰 욕심이 없다고 했다.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평범한 우리 일선 경찰관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희생해가며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지구대 2층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8시에 근무 교대를 한 후 밤샘 근무 체험을 마쳤다.

<Issue 9> 우리는 로보캡(RoboCop)이 아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지구대 경찰 생활을 20년 정도만 하면 전에는 없던 심장이나 혈관 계통 질환이 생긴다"는 말을 하였다. 본 체험자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샘 근무로 인한 피로, 범죄에 대한 긴장,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하고 있었다. 잦은 밤샘 근무로 인한 신체적 피로의 누적은 해당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로로 인해 양질의 치안 서비스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근무 형태 속에서 경찰관에게 초인적인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근무 형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정책제언 6 - 주기적 야근과 피로 문제**

○ 이번 일선 경찰 체험을 통해 경찰관들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다른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은 야간에는 일선 경찰관의 희생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선 경찰관의 희생과 봉사는 너무나 많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대외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업무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이런 대국민 홍보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긍정적 홍보를 지향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경찰 조직 내부의 구성원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11년 경찰청에서 업무 성과평가의 방식이 단순한 건수위주의 실적평가를 지양하고 국민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찰 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 것은 국민만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역할이 국민에 대한 봉사 혹은 도움 제공이라고 생각하도록 초임시절부터 교육하고 업무를 설계해 나간다면 구성원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결과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국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조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경찰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긍심 강화로 이어져 선순환이 계속되는 국민과 경찰의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찰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경찰관의 사기 저하 문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내재적인 방법과 외재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 외재적인 동기 부여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유인책이다. 최근 들어 경찰관의 봉급 인상과 시간외 수당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금전 등을 통한 외재적인 동기 부여책은 생활인으로서의 경찰관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경찰관 같이 공공의 안녕이라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중요한 동기 부여책이 바로 내재적인 것이다. 내재적 동기 부여책은 조직이나 국민을 위해 구성원이 충성이나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원

의 자존감, 자긍심 등을 조장하고 직무 확충(empowerment) 등의 강화를 통해 구성원의 자기실현 욕구 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이러한 내재적인 동기 부여책이 외재적 유인과 더불어 동시에 강조되어야 실질적인 사기 앙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Issue 10> 국민과 경찰조직의 사랑이 봉사하는 경찰을 만든다

일선 경찰관들은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의 보상 내용을 알게 되면서부터 조직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고 이야기한다. 명령대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법집행에 앞장선 경찰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현실은 우리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며, 앞으로는 어떤 경찰관도 국민과 사회를 위한 위험한 임무에 선뜻 나서지 않게 만들 것이다. 명예와 존경으로 살아가는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그에 걸맞은 존경, 사랑, 그리고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정책제언 2 - 제복에 대한 존중 문제

○ 길지도 않지만 짧지 않은 몇 주 간의 체험을 하면서 일선 경찰관은 국가 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에 가장 먼저 도움을 손길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물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및 평가 절하는 경찰 스스로 초래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찰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몰지각한 경찰들이 비리, 부패,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정권의 시녀 노력을 한 원죄로 인해 국민의 차가운 눈초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짜 평범한 일선 경찰관들은 박봉과 힘든 근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가정생활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임무 수행 중인데, 대다수 일선 경찰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찰들이 부패/비리 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공권력의 권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은 다수의 평범한 일선 경찰관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열정적인 업무 처리와 무언가 해

보려는 강한 의욕을 보였던 경찰 입직 초기의 높은 사기를 저하시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열심히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잘 해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을 흙탕물로 만들 듯이 전체 경찰은 한 묶음으로 취급받는다 혹은 일부 국민들은 본인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경찰을 제일 먼저 찾으려 하면서 정작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냉소적인 의식을 경찰관들의 머릿속에 만들어 버린다. 이는 일선 경찰관의 사기, 근무 의욕, 자부심 저하를 유도할 것이고, 그 결과는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종국에는 국민의 안전과 평안이 손상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III.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참여 관찰 및 이슈 정리

○ 본 연구는 2011년 6-7월 동안 상동지구대 3일, 형사과 4일, 교통과 1일 등 총 8일에 걸쳐 경찰관들과 함께 주·야간 근무를 실시하며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일선 형사들의 근무 실태 및 행태를 체험하기 위해서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형사들과 함께 주간 근무, 당직팀 근무, 즉응팀 근무를 동일한 여건에서 실시하였다. 본 체험자는 일선 형사들의 근무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여 가감 없이 소개함으로써 평범한 일선 형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국민과 국가에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 대구 수성경찰서는 1급지 경찰서로서 관내에는 23개동, 44만 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한, 대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서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이다. 관내에는 국가기관, 언론, 금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유동인구와 고급 아파트, 대형 식당가가 밀집되어 있어 대구지역에서 가장 높은 112신고와 범죄 발생률을 보인다. 수성경찰서의 조직구조는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가 있으며, 고산지구대, 황금지구대, 만촌지구대, 상동지구대, 지산지구대, 범어지구대, 파동파출소 등 6개 지구대, 1개 파출소로 이루어져 있다. 수성경찰서 형사과는 강력범죄수사 1-8팀, 형사지원팀, 과학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팀에 약 6-7명의 형사가 소속되어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통합 형사팀과 강력 형사팀으로 구분되어, 팀별로 담당하는 사건이 다르지만, 수성경찰서의 경우는 강력1~8팀으로 구성되어 각 팀별로 범죄 유형

에 대한 구분 없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 형사과 업무의 특성상 2인 1조를 이루어 수사 활동을 한다. 체험자는 강력범죄수사 8팀의 윤○○경사와 오○○경장과 한조가 되어 체험을 하게 되었다. 윤경사는 1976년생으로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컴퓨터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9월에 경찰에 입직한 8년차 경사였다. 3년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5년간 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경장도 지구대에서 2년간 근무를 마친 후 형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 체험자는 출근 시간에 맞춰 8시 50분 수성경찰서 형사과 강력6-8팀 사무실에 들어갔다. 수성경찰서 형사과는 사무실이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2개로 나뉘어져 있다. 1개의 사무실에 형사과 직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없어, 1-5팀, 6-8팀이 2개의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3개 팀 약 20명의 형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둘러보니, 책상 20개와 캐비닛 10개 그리고 한쪽 구석에 소파와 복사기, 에어컨이 전부였다. 20명이 사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공간이지만, 형사들의 책상 앞에 피조사자가 앉을 공간을 확보하니, 비교적 남는 공간이 없었다. 형사사건 상 수사서류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캐비닛 등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Issue 11> 경찰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국민들도 편하다.

수성경찰서는 27년 전에 만들어진 노후하고, 인력에 비해 매우 작은 건물을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형사과도 사무실이 2개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들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팀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조차 없다. 또한 각종 수사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이 포화상태에 있다. 형사과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주로 사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는 곳이다. 사무실에는 팀별로 파티션이나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으려 보는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상존한다. 물론 형사과 내에 진술녹화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건과 조사가 폭주할 경우에는 사용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진술녹화실의 확보가 필요하다.

⇒ 정책제언 17 - 청사 노후화 및 사무실 공간부족 문제

○ 형사 2명인 우리 조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약 60여건 정도가 된다. 시기적으로 약간의 가감은 있지만,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한정된 인력으로 수사하다 보니, 평균적으로 60건 내외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담당 사건의 배당은 크게 두 가지의 경로로 들어오게 된다. 첫째, 팀별로 관할지역을 분배하며, 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다. 우리 팀의 경우 고산지구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둘째, 4일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 당직과 즉응 근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관할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 발생을 예측할 수 있으나, 당직 또는 즉응 근무의 경우 근무하는 요일 별로 담당하게 되는 사건 건수의 편차가 크다.

<Issue12> 한정된 인력에 끝없이 떨어지는 사건 배당

형사들은 주로 당직 근무 중에 배당되는 사건이 많다. 간단한 폭력 사건에서부터 강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1일 당직 사건이 형사 1인당 50건이 넘는 경우도 있으며,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16건 정도의 당직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형사들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며, 실제적 진실 발견에 미흡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미진한 사건 처리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뒤로 하고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날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 정책제언 24 - 담당 사건의 과중

○ 출근과 동시에 담당하는 사건 서류를 검토하며 오늘 수사할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최근 범인 검거 중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8팀장을 대신해서 오늘은 부팀장이 아침 회의에 들어갔다. 보통 아침 회의의 전달사항을 듣고 외근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매일 이 시간에 오늘 처리할 사건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다. 60여건의 담당 사건 중에서 경중과 시급 및 사건 해결의 타이밍 속에서 오늘 외근할

동의 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다.

○ 오늘은 오형사가 10분쯤 지각을 하였다. 2주 전에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양말을 갈아 신지 못한 상태로 며칠을 경찰서에서 보냈더니 발에 봉와직염¹⁾이 걸렸다고 한다.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 8시에 개원하는 병원을 찾아 좀 멀리 갔다가 러시아워에 걸려 조금 지각을 한 것이다. 팬찮은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봉와직염이 걸린 부은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나타난 그에게서 형사라는 직업의 고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체험자는 봉와직염이라는 말을 근 20년 전 군대에서 들은 이후로 처음 듣는 말이었다. 군화를 신고 땀을 흘리며 자주 씻지 못하는 군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질병이 우리 사회의 형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오형사에게 며칠 쉬는 것이 좋지 않냐 권유하였지만, 그는 기존의 산적한 사건들과 매일 새로이 배당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봉와직염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임신 7개월인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프다고 한다.

<Issue 13>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쳤건만, 고작 3년...

형사들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은 범인 검거시의 부상과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한 의료적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쳤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상에 따라 휴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에는 면직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 할시 해당경찰관은 직권 면직된다.

⇒ 정책제언 7 - 공상에 의한 휴직기간 등에 대한 개선 문제

1)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로,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이 A군 용혈성 사슬알균이나 황색 포도알균에 의해 발생한다.

○ 9시 30분경 부팀장이 회의를 마치고 나왔다. 전달사항은 전날 발생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비리 관련 내용, 수사권 조정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어진 임무는 철저히 수행, 강력사건 예방에 노력, 담당사건 중에 쌍방 폭력사건 보고 등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전달 사항을 듣고 외근활동을 위해 배차를 받았다. 형사과에는 총 7대의 차량이 있으며, 6대는 스타렉스와 같은 봉고차 형태라고 한다. 우리 조가 오늘 배차 받은 차량은 한 달 전에 처음으로 보급된 SUV 차량이다. 형사과는 총 8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팀에는 2-3개의 조가 개별적으로 수사 활동을 한다면, 적게는 16개의 조와 많게는 24개의 조가 움직이는 차량이 총 6대 밖에 없다는 것이 배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Issue 14>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경찰

형사과의 8개 팀 중에 전날 당직팀과 즉응팀이 오전에 쉬기 때문에 팀별로 차량이 1대 정도씩 돌아가지만, 팀내에서도 2-3개조가 각자의 수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기존에 형사과에 보급된 차량이 동일한 차량 형태를 가지고 있다.

⇒ 정책제언 18 - 경찰관 장비 문제

○ 외근근무를 나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부팀장의 호출로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니, 우리 조의 담당 지역에서 변사사건 신고가 들어 왔다. 신고자는 혼자 사는 어머니가 몇 일째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확인을 부탁하였고, 관할 지구대인 고산지구대 근무자들이 해당 집에 가서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형사과로 연락을 한 것이다. 과학수사팀과 함께 급하게 현장으로 출동을 하였다. 관내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가 외롭게 생을 마감하였다. 자식들은 각자의 생계를 위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할머니의 사망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된 것이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무엇이랴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자극한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할머니께서는 사망한지 며칠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주무시다가 돌아 가셨는지 이부자리 위에 곱게 누워계신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사체의 부패는 이미 시작되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공기 속에서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사체를 면밀히 살펴본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들고, 한손으로는 손수건을 잡고, 현장을 지켜보려 하였지만, 구토가 나올 것 같아 현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처참한 살인사건이 아닌 자연사인 경우에도 사체의 발견이 늦어지면 부패가 발생하고 이러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윤형사와 오형사는 마치 익숙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현장을 관찰한다.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일일까...

<Issue 15> 경찰공무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관들은 항상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처참한 현장을 업무의 특성상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목격하기 어려운 동료의 죽음이나 자신의 신체적 손상 경험, 처참한 살인 현장, 교통사고, 변사 사건 등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외상사건의 반복적인 노출은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 정책제언 4 - 경찰공무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문제

○ 과학수사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주변의 지문과 기타 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는지 세심한 작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거재판주의로 인하여 날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형사의 능력과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지역의 변사체 검안을 담당하는 권박사께서 현장에 도착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학자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사님이 퇴직하신 후 우리 지역에서 검안의로 활동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힘이 되어 준다. 특히 오늘과 같이 변사체가 발견 되었을 경우, 그 분의 조언들이 유족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 우리 형사들에게는 큰 도움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유족들도 사건 발생 초기에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듣게 되어 향후 이의제기 등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어

울산에 살고 있는 큰아들 내외가 도착을 했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사건현장은 울음소리와 경건하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 활동이 시작된다. 과학수사팀과 검안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연로한 할머니께서 자연사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들 또한 현관문의 창문 등의 시건 장치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타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할머니의 사체를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형사들은 사무실로 들어와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올릴 변사 발생 보고서 등 사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할머니의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장례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가족들이 할머니의 사망을 자연사로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하려는 것이었다. 유행사가 큰아들에게 변사 사건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한다. 경찰에서 검찰로 변사 발생 보고서를 올리면,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여 부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한다. 큰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유행사가 재차 전화 수화기로 설명을 한다. 다행히 검찰청에서 '사체를 검시하여 타살혐의가 없으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할 것'이라는 수사지휘가 비교적 신속히 내려왔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말을 전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Issue 16> 경찰 수사주체성 확보 의미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수사는 약 98%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2011년 6월 30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로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 되었으나, 문제는 경찰의 내사를 수사로 보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 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제언 25 - 경·검간 견제와 균형으로 본 경찰의 수사주체성 확보 문제

○ 오늘 우리 조가 처리해야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아반떼 수배차량 확인

3일 전 야간에 수성구 덕원고등학교 인근 옥수골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불상의 30대의 남성이 여중생에게 길을 물어 보며, 차량에 태워 한동안 끌고 다닌 사건으로서, 당시 인근 CCTV에 찍혔던 약 30여대의 아반떼 차량에 대한 확인 조사 업무이다. 이 건의 경우 강력 7팀의 담당사건이나, 사건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근 팀에 조별로 4대씩의 차량을 확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유행사가 가지고 있던 60건의 사건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떨어진 사건이었다. 평상시 자신의 담당 사건을 처리하다가도 살인사건 등의 강력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형사들이 동원되어 담당사건은 뒤로 미뤄지게 된다고 한다. 이 사건은 유행사와 오형사가 전날 2대의 차량은 확인하였고, 오늘 나머지 2대의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었다.

(2) 통장 절취 후 현금 인출 사건(피해액 3,000만원)

이 사건은 유행사가 약 6개월 동안 공을 들여 수사를 하였던 사건이다. 피해자인 중소기업 사장은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삼천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도 통장이 없어진 것을 계속 모르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 은행에서 이자연체에 대한 연락을 받고,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서랍 속의 통장에서 삼천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았다. 유행사는 정황상 경리직원에게 확신에 찬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파손 없이 멀쩡한 점(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음), 둘째, 경리직원이 평소 피해자의 통장이 보관된 위치를 알고 있었던 점, 셋째, 피해자와 경리직원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인출자(한 달 전에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신원 불상의 4-50대 남성)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 넷째, 경리직원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절도 및 인출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짓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심정으로 경리직원의 친인척들의 운전면허 사진을 일일이 조회하여 인출자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1명 찾았으며, 오늘 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유행사는 체험자에게 CCTV의 인출자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며 닮았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다. 보기에는 얼굴형이나 눈썹 등이 상당히 비슷하였으나, 운전면허증 사진의 친척 연령이 아직 30대 중반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형사로서의 강력한 심증은 있으나, 정확한 물증

이 없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여 범죄자를 처벌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다.

(3) 절도 수배자 주변 인물 조사

피해 금액 500만원의 절도 수배자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몇 일전 수배자가 운형사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걸려 온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하니, 어떤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그녀는 그냥 식당 손님이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줬다고 한다. 하지만, 형사의 직감 상 수배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소지로 그 여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4) 월드컵 경기장 자판기 절도사건

대구 월드컵 경기장 공원에 설치 된 자판기에서 절도 범죄가 발생하였다. 피해품이 동전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근래 자주 발생하여 자판기 사업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현장은 CCTV 촬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자판기에 대한 지문을 현출하여 경찰청에 의뢰하였고, 20대 여성 1명의 지문이 검출되어 조사차 방문하는 것이다.

○ 갑작스러운 변사 사건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수사 활동이 정오가 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건이 계속 쌓이게 된다. 형사의 담당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죄는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업무는 밤을 지새우더라도 최대한 마무리 지어야 한다.

○ 수사 활동에 할애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점심식사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천 원짜리 김밥 두 줄로 대신하다. 오형사가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한 손으로는 김밥을 먹는다. 그리고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어디를 그렇게 보냐는 말에, 며칠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2040 야식배달'이라는 상호가 붙은 빨간색 오토바이가 사용되었는데, 혹여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본다고 한다. 손으로는 운전을 하고, 입으로는 식사를 하고, 눈으로는 수배 오토바이를 찾는 오형사를 보며, 왜 형사를 슈퍼맨이라고 하는지 알거 같다.

○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 보통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안에 따라서는 반나절 만에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나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경우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보통 3-5개 정도의 개별 업무를 처리한다고 한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리적으로 수성구, 서구, 남구, 북구에서 수사업무를 보기 때문에 3-4건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 차량으로 이동 중에, 비교적 빠른 진급을 한 운전사에게 특진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는 경장, 경사 모두 특진으로 진급하였다고 한다. 2003년 2월 같이 임용된 동기들 중에서도 승진이 빠른 편이라고 한다. 특진은 두 번 모두 연말실적으로 하였다. 최근에도 특진이 많은지에 대해 물어보니, 그는 최근 들어 수사경찰의 특진 TO가 급격히 줄었다고 말한다. 경위 근속승진이 이루어지고 부터 경위에 대한 특진이 대부분 없어졌다고 한다.

<Issue 17> 경찰조직의 인력구조상의 문제들...

계급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조직 내에서 승진이 지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직 9개보다 많은 11개의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승진적체의 문제로도 기인되지만, 인력구조의 기형적인 측면도 있다. 상위직 특히 총경 이상 또는 경감 이상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계급정년제, 복수직급제, 경감 근속 승진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 정책제언 8 - 승진적체 문제
- ⇒ 정책제언 9 - 복수 직급제 도입 문제
- ⇒ 정책제언 10 - 경위 정원 현실화 문제
- ⇒ 정책제언 11 - 경정, 경감 직급 조정 문제

○ 또한 그는 설사 근속이든 심사나 특진이든 경위가 되더라도 경감이상 승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올해 초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경과 부서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경위가 5명에 불과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도 나름대로 특진으로만 승진을 해 와서 일 하나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경감승진을 하려면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 현재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경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기관들과의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형사 업무는 검찰청을 비롯하여,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관리국, 관세청,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찰과 유관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 보니, 운형사는 “경찰이 타 정부기관에 비해 직급이 낮기 때문에 업무 협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경찰은 11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행정 기관장 보다 경찰의 서장, 지방청장, 경찰청장의 직급이 낮기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Issue 18> 경찰의 직급체계 달라져야 한다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법무부 산하의 1개청에 불과함에도 경찰청장과 같은 직급인 차관급 검찰간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44명이나 된다. 이에 반해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수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2008년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장·차관 대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약 120여명으로 이중 경찰청장도 포함되겠으나 업무비중과 인원, 조직 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낮은 직급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구대·파출소와 유사하게 읍·면·동 등 하부집행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경찰의 직급체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 정책제언 12 - 타부처와의 직급체계 불평등성 문제

○ 12시 30분경 아반떼 차량의 소유주가 있는 00동 연립에 도착하였다. 우선 주차장을 돌며 아반떼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으나,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차량 소유주

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역시 집에 아무도 없었다. 범죄자를 대하는 형사 업무의 특성 상 차량 주인과 미리 연락을 취해 약속을 잡을 수 없었다. 용의자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은 현장에 먼저 나와 봐야 한다. 만일 범죄자에게 미리 전화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연락 없이 은밀히 움직이는 것이 형사들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 차량 소유주의 집인 3층에서 내려오는 도중 창밖으로 오행사가 맞은 편 연립 계단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1-2분간 두 명의 형사는 그를 유심히 관찰하였고, 이내 그를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신분증 요구와 함께 왜 계단을 왔다 갔다 하냐고 물으니, 주머니 속에서 열쇠 수리점의 스티커를 보여주며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한다. 신분증이 없으니, 옆 단지에서 일을 시킨 사장을 부르겠다고 한다. 곧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장이 차를 몰고 오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언성을 높인다. 오행사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을 소개 한다. 그 사장은 형사가 맞냐고 2-3차례 물어보고 태도가 매우 온순해 진다. 우리 사회에서 정복 경찰관 보다는 사복경찰관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계 형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믿음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대신 사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 오행사가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했다. 중구에 있는 회사에 차량 소유주를 만나러 예정에 없던 중구의 00동으로 이동을 한다.

○ 12시 50분경 차량 소유자의 회사에 도착하였다. 우선, 주차장으로 가서 아반떼 차량을 확인한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비게이션, 차량 색상 등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다. 차량 소유주가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니, 의외로 차량 소유주는 51년생의 노인이었다. 체험자의 생각에는 더 물어 볼 것도 없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오행사가 질문을 했다. “아드님 있으세요?”, “아드님이 사건 당일 차량을 몰았나요?” 역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결과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사건 당일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13시 30분경 다시 수성구 00동으로 두 번째 아반떼 차량을 확인하러 갔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수많은 차량들 중에서 아반떼 차량을 찾았다. 역시 내부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후 차량 소유주 집을 방문하였다. 차량 소유주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인근 대학의 건축학과 재학생인 아들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들도 피해자가 특정한 신체적 조건하고 불일치하였으며, 당일 차량을 몰고 MT를 갔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그에게 배당되었던 총 4대의

차량에 대한 확인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 항상 범죄자일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조사 대상자들을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는 것에 또 다른 허탈감이 몰려온다.

○ 14시 25분경 절도 수배자 주변인물 조사를 위해서 서구 00동으로 이동을 하였다. 개인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주소지를 찾아 갔지만, 정확한 주소지를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주소지는 쉽게 찾아 갈 수 있으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의 방 한 칸 임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란 매우 어려웠다. 이 곳 저 곳 수소문 끝에 식당 여성의 단칸 셋방을 찾아 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변사사건 처리로 지체되어 가뜩이나 아까운 시간을 사용하여 찾아왔지만, 사건 당사자가 없으니 허탈할 뿐이다. 언제 올지 모를 그녀를 기다릴 수 없어 집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바로 다음 사건 해결을 위해 자리를 뜬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수사비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는 “몇 년 전에 비해서 수사비는 많이 현실화 되었다. 하지만, 수사비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작년까지 수사비를 팀별로 배당하여 사용하였는데, 올해 초부터는 개인별로 청구하게 바뀌면서 수사비가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다고 한다.” 관찰자의 판단으로는 팀별로 배당이 되었을 때에는 팀장의 관리 하에 수사비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사용되었으나, 개별적으로 청구하게 되면서 서로 경쟁이 과열되어 수사비가 일찍 소진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과거 팀별로 수사비를 받을 때에는 180-2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는데, 개인별로 수사비를 받는 지금 1인당 15만 원 선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사비가 과거보다 줄었다. 형사 업무의 특성상 위험수당을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 약 4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물론 경찰의 업무 특성상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형사업무의 특성상 생각 보다 너무 적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Issue 19> 수사비는 현실에 맞게

수성경찰서 형사과는 매월 약 900만 원 정도의 수사비가 지급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사비는 56명의 형사들이 사용할 경우, 1인당 약 16만 원 정도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하루에 많게는 1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한 사건 당사자와 참고인들을 만나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차나 식사를 사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검찰의 수사비는 많게는 경찰

의 34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정책제언 21 - 수사비 현실화 문제**

○ 14시 50분경 통장사건과 관련하여 복구 00동으로 이동한다. 수사 업무의 경우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수사를 하다보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많이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한다. 체험자의 생각에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본다. 범죄자가 수성구에서 범죄를 행하였다면, 경미한 사건이 아닌 한 수성구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인근 경북 지역 등 조용한 곳이나, 거리가 떨어진 대도시로 도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보니, 형사들이 그와 같은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할 이외의 전국을 대상으로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15시 25분경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하였다. 주소지를 찾아 가니, 집에 아무도 없다. 운전사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큰 공을 들였던 사건으로서, 오늘 이 수사를 마지막으로 사건이 미제로 남을 수 있다. 여러 고심 끝에 관리사무실에 가서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의 CCTV 확인을 협조 받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약 1시간 동안 일주일 정도의 녹화 분량을 빠르게 돌려가며 3명의 눈동자가 빈틈없이 CCTV 화면 위를 움직였다.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에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그의 얼굴은 아쉬움에 대한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반년 동안 심증이 가는 범인을 끝내 못 잡고 사건을 접어야 하는 허탈감이 강하게 묻어 나온다. 체험자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는 “아니다. 이 사건이 정리되어야 다른 사건들이 빨리 처리가 된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며 웃어 보였다.

○ 16시 40분경 재판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복구에서 다시 남구로 이동을 하였다. 주소지를 찾아가니, 5층짜리 원룸 건물이었으나, 주소에 몇 호에 사는 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시로 세입자가 바뀌는 원룸이다 보니 특별한 명패가 없다. 방법이 없다. 101호부터 순차적으로 벨을 눌러 보며 000씨 덕이냐고 질문을 한다. 평일 오후 시간이라 대부분의 집에 사람이 없다. 한참 벨을 누르는데, 일층의 할머니 한분이 현관문의 안전 고리를 채운 채 살짝 열린 문틈으로 우리를 계속 노려보았다. 건장한 남성 3명이 계속 벨을 눌러 대고 있으니, 무서우신가 보다. 그가 신분증을 보여 주며 경찰이라고 말해도 믿지를 않는다. 빨리 가라고 하며, 안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다. 원룸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000씨가 몇 호에 사는지 물어 보았지만, 건물 주인은 그런 사람이 없다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린다. 신분을

밝혔지만, 냉정하게 대하는 건물 주인의 태도에 대해 운형사에게 기분 나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주인이 더 좋은 주인일 수 있다. 경찰이라는 말만 믿고 세입자 정보를 다 알려 주는 것도 범죄의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000씨에 대한 통신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다. 17시 40분경 경찰서로 복귀하여 차량을 반납하자마자 그는 오늘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신 수사 의뢰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다.

○ 투박한 형사의 손이 컴퓨터 자판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 교수인 나보다도 타수가 빠를 것 같다. 형사들의 업무가 얼마나 시급하고 업무의 양이 많은 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 주간 수사 서류의 작성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8팀은 오늘 즉응팀으로 자연스럽게 야간 근무에 들어간다. 저녁 식사 시간이 부족하여 서류 작업을 하면서 교대로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

○ 20시경 부팀장 주재로 간단한 회의를 한다. 1달 전에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용의자 전과 7범 000이 내일 새벽에 친구 집을 찾아온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자정까지 2개 조로 나누어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돌고, 자정 이후부터 8팀 전원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 20시 30분부터 00시까지 유흥업소와 대형식당이 밀집된 지역에서 기동 순찰과 거점 순찰을 하였다.

○ 순찰 도중 10-20분 간격으로 지구대에서 각종 사건들을 즉응팀에게 연락해 온다. 수성구는 유흥가 밀집지역으로서 거점 순찰의 필요성도 매우 높으나, 사실 각 지구대의 연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다.

○ 강도·강간 용의자 000의 친구 집인 북구 00동으로 01시 20분경에 이동을 하였다. 개인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 한가운데 친구의 집이 있다. 다행히 현관이 하나뿐이라 수월하겠지만,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차량에서의 잠복근무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 잠복 대상 지역이 단독으로 외떨어져 있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좀 멀리 세워 놓아도 출입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럴 경우 잠복 중간 중간에 시동을 켜고 에어컨이라도 틀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같이 주택들이 밀집된 곳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잠복하다가 용의자

를 확인하거나 검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차해 둔다. 이렇게 가까이 차량을 세워두었을 경우 용의자가 눈치를 챌 수도 있어 시동을 걸어 놓고 있지도 못한다. 일반인들이야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어도 별 관심이 없지만, 죄를 지은 자들은 자신이 잡히지 않으려고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쓰며 도망을 다니기 때문이다. 대구의 밤은 자정인데도 온도가 26도에 이르고 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이러한 날씨에서 사우나 같은 차량 안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용의자를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투철한 사명감과 엄청난 인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잠복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물을 비롯한 음식물 섭취를 안 한다. 오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용의자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칫 그 시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2시가 되자 슬슬 화장실을 다녀와야 한다는 신호가 온다. 주택가 지역인 이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다. 걸어서 최소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놀이터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그 사이 000이 온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차량을 가지고 빨리 갔다 올 엄두를 내지도 못하는 데, 그 이유는 주택가 골목길에 늘어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우리 차량이 빠지면 바로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잠복근무도 끝내야 할 수 밖에 없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온몸은 땀으로 적시면서 방광에서는 소변을 배출해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차라리 소변이 땀으로 배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3시간을 차 안에서 앉아 있다 보니, 온몸이 육신거리기 시작한다. 다시 한 번 형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생각해 본다.

○ 04시 30분경 밖에는 여명이 밝아 오기 시작한다. 또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지만, 형사들은 묵묵히 차안에서 000을 기다린다. 한곳을 응시하고 있으니, 눈의 초점이 자꾸 흐려지고 하루 종일 대구 시내를 누비며 수사하였던 피로로 인해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온다. 그러던 중 골목길 끝에서 모자를 쓰고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 하나가 다가온다.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직감적으로 윤행사와 오형사는 자세를 낮추고 000임을 확인한다. 000이 친구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검거해야 한다. 집에 들어가 버리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검거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었다. 윤행사가 도주로를 차단하는 사이 반대편에 있던 다른 팀원이 000를 검거하였다. 다행히 검거과정에서 사고 없이 체포되었지만 범인검거시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지켜보던 체험자도 나도 모르게 손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쉬어도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윤행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검거한 피의자를 차에 태웠다.

<Issue 20> 칼 들고 덤비는 범죄자를 맨몸으로...

형사들은 흉악한 범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무기로서 권총이 지급되며, 방검복, 삼단봉 등의 장비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방검복은 매우 중요한 경찰의 보호장구이다. 그런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조끼형은 범죄자들에게 내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는 형사들이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

⇒ 정책제언 19 - 형사 보호장구에 대한 개선 문제

○ 05시경 000를 체포하여 형사과로 돌아왔다. 000을 검거한 것이 1차전 이었다면, 이제는 000의 범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2차전이 남아 있다. 오랜 시간 잠복을 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000와의 또 다른 두뇌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 며칠간 형사들과 같이 한 체험자는 지치고 긴장감의 끝에 몸이 나른해져 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8팀 형사들은 주어진 24시간의 근무가 끝났음에도 검거한 범죄자를 놔두고 쉬러 갈수 없었다. 000을 긴급체포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48시간 안에 긴급 체포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기 위한 범죄사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피의자와 본격적인 2차전을 시작하고 있는 윤행사의 눈은 밤샘으로 붉게 충혈 되었지만 형사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빛이 나고 있었다.

○ 이번 체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경찰, 특히 형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 의식 없이는 할 수 없는 매우 고되고 외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높은 범죄자 검거율 등 안전한 치안은 선진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형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강도 높은 업무량 속에서 오직 사명

감으로 버티며 성취한 결과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사법경찰로서 각종 흉악한 범죄자들과 직면하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긴급체포 등 순간순간의 법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그들에게는 강인한 체력과 함께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법률적으로 인신구속의 제한, 신속한 공개재판과 무죄추정원칙 등을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의자나 범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 따라 형사들은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가장 먼저 접하며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그 아픔을 감싸 안으며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형사들은 ‘나는 대한민국 형사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밤낮이 바뀌고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잠시 미루면서도 당신의 평안한 일상을 위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IV. 전남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참여 관찰 및 이슈 정리

1. 체험을 시작하며: 우리는 매일 경찰과 만나고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다

○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경찰과 접촉할 때는 언제일까? 소중한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반면 한 번도 경찰서를 가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나 역시 지금까지 파출소조차 가본 적 없이 40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경찰과 매일 부딪치고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퇴근할 때, 지인을 만나러 가거나 강의를 하러 갈 때 도로 위에 항상 서있던 교통경찰, 음주단속으로 가끔은 짜증나게 하던 교통경찰, 평소 운전할 때에는 안 보여도 아쉽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았으면 하다가도 도로가 꽉 막히면 어디 있나 찾게 되고 왜 안보이나 투덜거리게 만드는 교통경찰과 일상에서 매일 부딪히고 있다

○ 교통경찰은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국민과 항상 접촉하고, 국민들도 교통경찰관의 활동을 매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자신이

직접 접촉한 교통경찰의 이미지가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 따라서 교통 경찰관의 업무 수행 방식과 태도는 단순히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교통 경찰관의 서비스 행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만족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일선 교통 경찰관의 근무 실태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이들의 고충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6-7월에는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7회에 걸쳐 교통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현장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뿜어내는 아스팔트 위에서,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 우의 한 장을 걸치고 폭우 속에서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경찰관의 근무 모습을 현장에서 일부나마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 순천경찰서가 관할하는 순천시는 과거 승주군을 포함한 도농복합도시로서 면적이 여타 시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이다. 또한 인구 27만여 명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9만여 대로 시민 3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대비 차량 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또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3개 도시가 위치해 있는 광양만권의 중심지로서 유동인구가 많고,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시를 관통하고 있고,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 지역을 오고 가는 차량으로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1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약 4.8건에 달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순천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선 교통경찰관의 업무를 체험하기 위해 순천경찰서를 선정하게 되었다.

○ 순천경찰서의 경비교통과는 경비작전계, 교통조사계, 교통관리계, 종합상황실 등 4개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최일선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교통기능인 교통관리계와 교통사고조사계의 중심으로 현장 체험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교통관리계 체험

1) 길 위의 모든 사람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 새벽 5시 40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순천경찰서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출근길 RH(러시아워 Rush Hour)에 맞추어 근무를 하려면 오전 6시30

분까지 준비를 하여야 된다는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의 말이 밤새 귓가에 맴돌아 잠을 설치게 되었지만 새벽 공기의 상큼한 기운을 느끼며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고 경찰서로 향했다. 차가 뜬한 길을 달리며 교통경찰은 주민들의 출근길을 위해서 밤새 근무하고 또 새벽부터 매일 근무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순천경찰서에 도착을 하였다. 교통관리계 사무실은 경찰서 본관 옆의 가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멋있는 건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닌 가건물을 보니 호화 청사 신축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던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생각이 났다. 아직 시간이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한잔 빼 하루의 연구일정을 점검해보려고 하였다. 그 순간 체험자의 옆으로 교통조끼를 입은 경찰관이 분주하게 순찰차로 갔다. 교통순찰차에 경찰봉과 교통모와 여러 가지 서류와 장비를 넣은 경찰관은 체험자에게 다가와 교수님이 맞냐며 확인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어서 옷을 갈아입어야 시간 내에 근무지에 도착할 수 있다며 재촉을 하였다.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처음 입어보는 낯선 경찰복을 갈아입고, 서둘러 출근길 러시아워 근무지로 출발하였다. 순찰차 조수석 창문에 비치는 경찰복을 입은 낯선 체험자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체험이 기대가 되었다.

○ 순천시 관내에서 차량 소통이 많은 곳 중 하나인 곳에 도착을 하였다. 아직 많은 차가 보이지 않았지만 순천IC가 근처라 조금만 지나도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같이 간 교통경찰관은 도로 가운데로 신호봉을 들고 나가며 체험자에게는 안전지대에 있으라고 하였다. 교통경찰관의 말대로 잠시 후 어느새 차량들로 도로는 가득 찼고, 사방에 밀려드는 차량들을 보며 운전석에나 길을 가다 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다. 교통경찰관은 교통신호기에 맞추어 진입하는 차량들의 꼬리가 다른 신호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일명 ‘꼬리 끊기’에 여념이 없었다. 근무 중에 인터뷰는 힘들 것 같아 안전지대에서 교통경찰관의 행태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혹시 직접 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잘 움직여 주었다. 간혹 한 두 대의 차가 무리해서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이내 교통경찰관의 제지에 진입을 하지 못하였다. 무리해서 가 보았자 1~2분 먼저 가는 것인데 그 1분 때문에 다른 방향의 수십여대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 하게 하고 수많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이다

수신호를 하던 교통경찰관이 교통신호기 쪽으로 걸어왔다. 교통신호기를 수동으로 바꾸어 직접 조작을 하였다. 순천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수동으로 바꿔서 소통을 해주지 않으면 고속도로까지 밀릴 것이라고 하였다.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

는 차들을 보며 혈관의 피와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동맥경화로 막힌 혈관을 치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중 옆을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가 큰소리로 연구자를 보며 뭐라 하고 이유 없이 클랙슨을 크게 울리고 지나갔다.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였지만 욱 같았다.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잘못 한 것도 없는데 왜 욱을 하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교통경찰관은 운전자들이 신호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니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한 일인데 욱을 먹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통경찰관은 저런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니 마음에 담아둘 것 없다고 하였다. 잠시 신호기를 조작하던 경찰관은 다시 사거리에서 수신호와 꼬리 끊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름 아침이지만 태양의 열기에 땀이 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였다. 매캐한 매연냄새에 코가 아프고 열기에 머리가 아팠다. 교통모를 쓴 머리는 아침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하도 덥고 답답해 여름보다 겨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시간이 넘는 교통근무가 어느덧 끝났다. 근무를 같이 하며 다양한 인터뷰를 하려던 연구계획은 너무 바빠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끝나 버렸다. 돌아오는 순찰차 안에서 너무 더워 힘들지 않았는지 물어보며 차라리 좀 추운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자,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였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방한장비 같은 것이 많이 좋아져 근무하기가 수월해졌다고 하면서도 겨울 도로 위 살을 에는 추위는 피할 수 없고 특히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져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고 하였다. 더위도 추위도 교통경찰에게 피할 수 없는 근무조건이었다.

○ 순천경찰서에 돌아와 구내식당에서 짧게나마 같이 근무를 한 경찰관과 아침을 맛있게 먹고,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갔다. 교통관리계장은 잠시나마 교통관리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교통관리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음주운전 단속, 교통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총 21명의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중 10명은 경찰서 외부에서 상시 외근을 하고 있다. 교통관리계장의 소개로 교통관리계 3팀장인 한○○경위를 만났다. 한○○ 팀장은 1993년 7월에 경찰에 입문한 뒤 주로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19년차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한팀장으로 부터 교통관리계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받았다. 순천시의 경우, 자동차 대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850건에서 1,668건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작년도 발생건수는 44건으로 제작년의 57건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법규 위반 단속에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수

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5일 장이 서는 날에는 시장을 돌며 전단지 직접 배포하기도 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현장 주변의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고 유발 요인들을 정밀 분석하는 일에 주력한다.

○ 한팀장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한 뒤, 며칠 전 집중호우로 도로 옆 옹벽의 흙이 무너졌던 ○○백화점 쪽 인근 도로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교통순찰을 나섰다 이 도로는 광양시로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곳이다. 며칠 전 폭우 속에 운전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났다. 얼마나 비가 왔는지 하수구에서 빗물이 역류를 하고 순천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는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느라 여기저기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더욱이 신호가 바뀌어도 서로 먼저 가겠다고 차 앞부분을 들이미는 이른바 꼬리 물기를 하는 운전자들 탓에 혼란은 가중되었다.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서 뛰어다니던 교통경찰의 노력으로 꼬이고 엉켜 있던 차량은 겨우 풀렸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날 교통관리계의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순찰차 한 대가 고장 나기도 하였다고 한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집중호우가 잦아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가 되었는지 한팀장은 순찰차를 세우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근처 하수구의 상태 등을 살펴 보았다. 임시로 방벽을 설치해 놓았으나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또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교통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Issue 21> 예산이 없어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못하다니...

오랜 기간 교통 분야에서 일해 온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교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오직 도나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만 확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정책제언 20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관련 예산 확충 문제

○ 다시 순찰차에 올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여수 방향 17번 국도를 향했다. 이곳은 공업단지인 여수와 광양 지역을 오고 가는 대형 트럭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경찰관들이 수시로 예방 활동을 펼치는 구역이다. 이 지역은 오전과 오후 순찰 시 반드시 들러 보게 되는 필수 코스라고 한다. 직접 단속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경찰 순찰차가 순찰을 실시하면 이를 본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게 되고 신호 위반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통순찰차와 스치듯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며 경찰이 밖에서 보던 것과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지나가는 경찰차를 봐도 그냥 경찰차가 지나가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차안에서 사고예방과 소통을 위해 살피고 고민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잠시 신호등에 걸렸을 때 순찰차 옆에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리면서 중년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흥국사 가는 길을 물어왔다. 연구자는 흥국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이 됐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려고 보니 이런 내가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는 생각이 번쩍 났다. 길을 알려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중년여성은 체험자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창문 밑으로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치 검색을 하려고 하였다. 옆에서 이를 듣던 한팀장이 다행히 흥국사 위치를 잘 설명해 주었다. 중년 여성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한팀장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당부만 잊지 않았다. 순찰을 돌다보면 길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모든 곳을 잘 알 수 없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아서라도 알려준다고 한다. 과거 경찰에 말 걸기도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대학교 때 경찰이 다가오면 괜히 불안했었는데 세상도 바뀌고 경찰도 많이 바뀐 것 같다.

○ 관내 순찰을 마치고 한팀장과 함께 외근 교통 경찰관들의 거처인 조례교통센터를 방문했다. 공영주차장 한쪽에 위치해 있는 조립식 건물인 조례교통센터에는 교통 경찰관이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순천시에는 2곳의 교통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례교통센터 이외에 의료원교통센터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다. 조례교통센터에는 3명, 의료원교통센터에는 2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경찰서가 아닌 이곳으로 바로 출근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센터에서 커피 한잔을 하며 한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교통 싸이카를 운전하는 나○○경관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였다. 1991년에 입직한 20년차 경찰관인 당

당한 체격의 나○○경관은 밝은 얼굴로 우리 일행과 인사를 나누었다. 6년여 간 싸이카 근무를 했다는 그는 자신의 업무에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는 듯 했다. 싸이카 운전자는 순찰차와 달리 날씨와 기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충이 적지 않지만 마라톤 대회나 국토종단과 같은 민간 행사시 최일선에서 행사 진행을 돕거나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등 보람을 느끼는 일도 적지 않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싸이카 경찰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가죽 장화는 싸이카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게 되는데, 무더운 여름에 장화를 착용하고 뜨거운 열기를 뽐어내는 싸이카에 탑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 교통센터를 나와 순천 재래시장 주변으로 근무를 나갔다. 순천 재래시장은 전남권에서는 규모가 큰 편으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많은 대기업의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나 길가에는 노점상들의 좌판이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뻥뻥이 들어섰고, 여기저기서 손님과 주인과의 흥정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도로변에는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의 차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한팀장에게 주차위반이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 묻자, 상인들은 주차위반 단속이 많으면 손님이 줄기에 단속에 무척 예민하다고 한다. 주차위반의 경우 단속이나 계도조치를 해야 하지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도나 조치를 한다고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큰 방해가 되는 이중주차 경우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경우에는 이동조치를 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교통체계를 개선하거나 주말이나 설이나 추석의 경우 주차를 허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마침 이중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순찰차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동을 지시하자 중년 남성이 손에는 재래시장에 산 물건을 들고 미안한 표정으로 열린 차에 올라 이동하였다. 대형마트 이후 규모가 작아져가는 재래시장을 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도 사라져간다고 생각했는데 경찰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래시장 상인들도 알고 있을까? 잠깐 차에 내려 주변상인에게 물어보았다. 즉석에서 어묵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인은 웃으며 주차 단속은 아예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차가 막히는 것도 문제라고 하였다. 주차장을 만들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의 조화를 시키려는 작은 노력이 크게 보이는 것은 체험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느 덧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퇴근 RH(러시아워 Rush Hour)근무를 위해 전 직원이 각자 지정된 장소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순천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다는 조례사거리로 향했다.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아스팔트 위에서 매연 차량들을 비집고 교통정리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바쁘게 오고 가는 자동차의 행렬 속에서 물 한잔 마실 여유도 없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교차로 내 꼬리 끊기와 신호기 조작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교통경찰의 신호에 따라 그 많은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경찰관 한명 한명이 맡은 역할이 작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시작되는 저녁 7시 경부터 갑자기 교통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도로가 정체되면서 일부 무리하게 우회전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들이 경찰관이 서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체험자도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이러한 차량들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일부 구간이 정체되자 중앙선 근처에서 교통 지도를 하던 경찰관이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신호기 조작을 시작하였다. 그는 안전구간에 있는 경찰관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신호기 조작을 통해 차량의 주행 및 정지 시간을 조정하였다. 신호기 조작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출근 차량들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차량 정체로 짜증이 난 몇몇 운전자는 차문을 열고 교통경찰에게 항의를 하였다. 교통체증으로 화가 난 운전자들이 경찰관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하고 성인군자처럼 한없이 인내만 할 수 밖에 없다. 저녁 8시 30분경이 되자 비로소 교통 정체가 해소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교통정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경찰서에 복귀하게 되었다.

<Issue 22> 항상 도로 위에서 일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도로 위의 교통 경찰관은 때로는 엄정한 법집행자로서, 때로는 다정한 길 안내자로서 도로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및 전·의경 교통지원 인력 감축 등으로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도로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통경찰의 근무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 정책제언 16 - 교통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 문제

○ 러시아워 근무를 마치고 센터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근무 중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아무래도 일반 자동차보다는 이륜차 운전자가 더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 순천 지역은 스쿠터를 운전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아 걱정스러운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스쿠터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고령자들은 가급적 스쿠터 탑승을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더불어, 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사고발생률이 높은 이륜차의 경우에도 이를 많이 이용하는 퀵서비스 회사나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에 면허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륜차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운전자가 소속된 기관에 연락을 취해 헬멧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현장에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고 한다.

<Issue 23>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하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와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정책제언 27 -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문제

2) 음주와 운전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 다음 날에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 체험을 위해 야간에 교통관리계를 방문했다. 교통관리계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근무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외근활동에 필요한 조끼, 신호봉을 착용하고 당일 야간 근무팀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현장으로 출발했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지역은 유흥업소에서 가까운 연향동 교차

로였다. 음주운전 단속은 주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유흥가나 식당가 등 밀집지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데, 주말에는 주간 음주운전도 많이 발생하여 유원지 부근을 중심으로는 오후 시간대에도 실시한다고 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직진·회전 차량 및 반대차선의 이면도로 진출 차량까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차량 운행속의 저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선정할 때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내리막길이나 커브길처럼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와 아파트 입구, 시장주변 등 실적 올리기 식 단속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3차선 이상의 대로를 차단하고 일제 검문식으로 단속하는 것 또한 지양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팀은 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주운전 용의차량의 선별 및 정차 지시와 서행 유도를 담당하는 선별조, 대화·탐지로 음주측정 여부를 판단하고 하차 조치를 담당하는 검문조, 도주자 차단 및 용의자 음주측정을 담당하는 차단조가 그것이다.

○ 선별조는 신호봉을 점등하고 모든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한 후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선별한 다음 선별된 용의차량을 검문조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추돌사고 위험이 없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서행 이동토록 한다.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경우, 운전자의 안색 등으로 보아 술 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차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경우, 고성이나 차내 소란이 있는 경우,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경우,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경우, 운전행위와 불일치하는 신호조작을 하는 경우, 급하게 가속이나 감속하는 경우, 브레이크를 산만하게 조작하는 경우, 부서지거나 결함이 있는 차량인 경우에는 선별조에 의해 음주운전 차량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크다. 검문조는 정차한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주시하고 표정 등을 집중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의 속도, 정치상태, 브레이크 조작 상황 및 얼굴의 긴장도 등을 유심히 살펴본다. 동시에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면서 음주여부 및 범죄 여부 등을 관찰하고 탐지한다. 대화중에 운전자의 표정, 냄새, 태도 등을 면밀히 살펴 음주 또는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하고 하차를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통해 측정을 하게 된다. 만일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추적 검거하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한 추적을 지양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통보 조치를 하게 된다.

○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

거 음주단속은 대로를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일제검문 식으로 이루어졌으나, 2009년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및 범인 검거가 용이한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하여 선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로 가로등이나 주변 조명 등이 설치되어 시인성이 확보되며, 상호 공조·지원이 가능하고 주변 도로까지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한 안전한 도로를 선정하고, 단속지점 20-30m 전방에 단속 예고 LED 입간판, 경보 등, 라바콘, 휴대용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서행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속 근무자도 야광조끼와 플래시 등 안전장구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 이날 체험자는 약 4시간여 동안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있었는데, 총 5건의 단속 사례를 지켜볼 수 있었다. 현장의 경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음주단속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됨으로 인해 예전보다 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한건도 단속하지 못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며 웃으며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팀은 1시간마다 단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실적을 올리려는 것보다는 한 지역에서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검문조에 포함된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단속 경찰관과 자동차간 간격이 채 50cm도 되지 않아 차량이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오면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음주운전 단속 차량들은 검문소에 도착하기 전에 서행을 하도록 유도 받지만 만취자가 검문에 불응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할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인 단속 경찰관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Issue 24>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위험한 일

대부분의 음주운전 단속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단속 경찰관은 도로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정책제언 26 - 경찰관 안전 문제

○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05%에서 0.1%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정지,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일단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 과중하기 때문에 일부 음주운전자들은 단속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측정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날 단속에서 음주가 감지된 5명 중에서 1명은 음주측정을 끝내 거부하고 입건되어 경찰서로 향했다. 나머지 4명은 본인의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고 경찰승합차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 조치되었다. 귀가시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였다. 이날의 단속 현장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나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음주측정 거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경찰관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거나, 음주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거나, 인맥을 동원하여 무마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호소하며 애걸복걸하거나, 아니면 도주를 시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인맥을 동원해도 음주측정을 피할 수 없으며,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리해진다고 한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리는 운전자를 상대하는 일이 많이 힘들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리운전비를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하다 검거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3. 교통사고조사계 체험

○ 교통관리계에서의 현장 체험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교통조사계를 방문했다. 젊은 교통조사계장이 반갑게 맞아 주고 조직 및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교통조사계는 일반조사반과 뺑소니전담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조사반은 5개 반, 뺑소니전담반은 1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반에는 3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교통조사계의 정원은 23명이지만 현재는 3명이 부족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까지 포함한 월평균 근무시간은 332시간에 달한다고 한다.

<Issue 25> 교통사고조사, 할 일이 너무 많다

교통조사계는 경찰 내에서 업무가 가장 과중한 부서중 하나로 손꼽히며 극심한 업무강도로 인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정책제언 28 -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 처리 절차 개선 문제**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부근의 지구대·파출소 또는 교통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후 관할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인계하며,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리한다. 교통조사계 경찰관들이 골치 아픈 교통사고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경찰서 내에서 가장 업무가 많다는 교통조사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자리가 비어 있었다. 다들 어디에 갔을까 궁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물어보았다. 빈자리는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의 30%-40% 정도를 사고현장, 인적·물적 피해 확인을 위한 병원, 폐차장 등으로 외근활동이 잦다고 하였다.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추후 사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 갈 때는 교통사고조사용 장비를 휴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구배측정기, 확대경, 광파 거리측정기, 나침반, 굴림자, 플래시, 석필, 초시계 등 20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향후 보험처리나 민·형사책임을 대비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사고당시의 시뮬레이션 작업은 필수적이라 한다. 또한 현장 답사는 혼자 보다는 2-3명이 한 팀이 되어 실시하는데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항은 사무실에 돌아와서 아침 조회나 회의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동료들의 조언을 얻게 된다.

○ 사무실의 조사계 경찰관들은 각자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 해결에 몰두하느라 체험자가 다가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양해를 얻어 조사3반 정경사의 사건 처리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경사는 1995년도에 경찰에 입문한 뒤 교통조사계에서

7년여 정도 근무를 한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사고 당사자들이 약속 시간에 도착하자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순천예술회관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해 발생했다. 다행이 큰 피해는 없었으나 양측의 증언이 서로 달라 과실 책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이들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은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다. 목격자도 없고 오직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애매한 사고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정경사는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에게 사고 경위와 과실관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했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상대가 100% 잘못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결국 끝까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어긋나자 며칠 후에 광주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옆에서 지켜보니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거기에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어도 쉽게 수긍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간혹 민원인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가 끝나면 또 다른 경찰관이 방금 조사를 마친 당사자들에게 교통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 조사를 한다고 하였다.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조사관의 응대태도는 친절하였나요?’, ‘조사관의 업무처리는 공정하였나요?’, ‘조사관의 업무처리는 신속하였나요?’, ‘사무실 환경이 쾌적하였나요?’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인지 과거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한다.

○ 사건 당사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정경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자동차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될 것을 사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경찰서에까지 와서 진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조사결과는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양자 간 과실 비중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전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당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결국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검사로 이어지기 보다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직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사고 당사자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사건도 많지만 처리 시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사건도 적지 않다고 한다. 평균 하루 처리 건수는 15-20건 정도로 조사계 소속 경찰관 1인이 평균 하루에 한건 씩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그만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애로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이 사고 조사를 받기 위해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 그만큼 교통조사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Issue 26 > 교통경찰에 대한 성과평가

성과 지표 중심의 실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행 성과 평가제 하에서 교통경찰관은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속실적을 강조하다 보면 단속위주의 경찰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 정책제언 13 - 교통경찰관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개선 문제

○ 정경사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로 사고 현장에 가서 사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에서는 사체의 훼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체는 대부분 훼손이나 손실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고 당사자들이 도착해서 아쉽지만 정경사와의 대화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 자리를 옮겨 옆 사무실에 있는 뽕소니전담반을 방문하였다. 비록 3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이라고는 하나 이곳 역시 매우 비좁은 가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뽕소니전담반 소속 직원 3명 중 2명은 현장조사를 위해 출타 중이었고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

한명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 우리를 맞이해준 뺑소니전담반 소속 문경사는 1994년에 경찰에 입문한 이후 여수경찰서를 거쳐 2000년부터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순천경찰서에 부임한 뒤로는 주로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뺑소니 전담반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눈에 봐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는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다. 6년간이나 근무부서를 바꾸지 않고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뺑소니 수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 조사에는 오랜 경험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과 사건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피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렵거나 사건이 미궁에 빠져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는 단서를 가지고 뺑소니 사고자를 검거할 경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맛에 남들이 선호하지도 않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ssue27> 경찰의 대표적 3D 중 하나, 교통사고조사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들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 경찰관에 비해 포상이나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책제언 14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 다른 한명의 뺑소니 전담반 소속 경찰관이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자 D경사는 본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뺑소니 사망 사건을 탐문 수사하기 위해 외근 준비를 하였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가해 차량이 순천시 연향동의 편도 3차로 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55세 남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건이었다.

사건현장에 유류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인근의 상가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한 결과 피의차량은 현대 베르나 승용차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망자의 손상부위를 봤을 때 가해차량은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여, 최근에 이를 수리한 차량을 탐문하기 위해 순천시내 자동차 공업사 몇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 우리는 문경사의 양해를 얻어 탐문수사 과정에 합류하게 되었다. 제일 처음 방문한 자동차 공업사의 사장은 문경사와 친분이 있어 보였고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정보를 구하는 등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가해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날 총 5곳의 자동차 공업사를 방문했는데 마지막에 방문한 곳은 다소 통명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문경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해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탐문수사를 하다보면 괜히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문경사의 말이다. 어쨌든 이날 탐문수사는 큰 소득이 없이 끝날 수밖에 없었다.

○ 뺑소니 사건 수사에 있어 모범운전자회, 자동차 정비 업소, 폐차장, 자동차 부품 가게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이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와 같이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경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사건이 없을 때도 수시로 들러 친분을 쌓고 조기 축구회 등 각종 친목단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그 덕분에 문경사가 탐문수사를 하기도 전에 수리 센터에서 먼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와서 사건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 이날 문경사는 동료 없이 홀로 탐문수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혼자서 수사를 하기 보다는 2인 1조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뺑소니 전담반에 소속된 경찰관의 수가 정원에서 1명 부족한 3명에 불과하다 보니 이날처럼 혼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베테랑 경찰관과 신참 경찰관이 한 조가 되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참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현실에 대해 문경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 3명이 근무하는 것과 4명이 근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Issue 28> 교통경찰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한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주력해 왔는데 이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고급 교통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 정책제언 5 - 교통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 뿐 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정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다. 대부분의 뺑소니 사건은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즉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 놓여 있거나 도난차량이나 대포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 뺑소니를 하게 될 확률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뺑소니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 발생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유류품을 수거하는 것이다. 현장에 떨어져 있는 부서진 차량 부품 조각들이 가해 차량 식별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늦게 현장에 출동해도 뺑소니 차량은 멀리 도주하고, 중요한 단서들은 다른 차량들에 의해 파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즉각 현장에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술자리에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문경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은 다음과 같다.

“요즘은 대낮에 대로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도 제보자를 찾을 수 없어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께서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경찰에 제보해주시면 사건 해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목격자의 신고가 사건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을 검거하거나 신고한 유공자에게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주말 또는 휴가철에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며 집을 나섰을 때 교통체증에 힘들게 운전한 경험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 등을 요인으로 2001년 1,291만대이었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 1,794만대로 증가되었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2010년 한해 일어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총생산손실법’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총 교통사고 비용은 약12조에 달하고,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원에서 2008년 2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1년 정부예산이 총309조원 규모라고 보았을 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교통 혼잡과 사고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교통경찰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교통경찰이 단속과 사고처리를 한다는 인식을 벗어나 사회적·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아 교통경찰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통경찰에 대한 인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각 개인의 내적동기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체험을 하면서 주로 느낀 점은 많은 교통경찰들은 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적인 어려움과 일부 민원인의 모욕적인 언동에 힘들어한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불만, 승진에 있어서 느끼는 소외감, 일부 낡은 장비 등으로 인한 고충이 없지 아니하다. 한 경찰관은 자신이 사용하는 낡은 PDA를 보여주며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것인데 이제는 부품이 없어 수리도 잘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처리속도도 늦고 자주 시스템이 다운되어 교통민원인으로부터 오히려 단속된 사실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고 하고 다른 경찰관은 ‘싸이카를 서로 타지 않으려고 하여 나 아니면 탈 사람이 없다고 사정하여 내가 탔다’고 한다. 둘째, 교통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안전을 위해 교통경찰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V. 일선 경찰관의 근무환경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이상과 같이 일선 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체험과 인터뷰 그리고 관찰을 통해 발굴 정리된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및 행태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	지구대	형사	교통
중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대 청사 문제 -경찰관 자부심 문제 -경찰 장비 문제 -경찰관 안전 문제 -경찰관 교육 문제 -주취자 문제 -경찰관 보수 및 수당 문제 -지구대 관할 업무 문제 -주기적 야근과 피로 문제 -제복에 대한 존중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협소 및 시설 부족 문제 -형사담당 업무의 과중 -공상에 의한 휴직기간 등에 대한 개선 문제 -수사차량에 대한 다양화 및 증차 -경찰공무원의 PTSD 관리 -승진적체 문제 -복수직급 도입 문제 -경위정원 현실화 문제 -경정, 경감 직급 조정 문제 -경검 간 견제와 균형으로 본 경찰의 수사주체성 확보 의미 -타부처와 직급체계 불평등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시설 관련 예산 문제 -교통경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문제 -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 단속 문제 -교통조사 업무 과다 문제 -이의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문제 -교통경찰 성과평가 제도 개선 문제 -교통경찰 처우개선 문제 -교통전문가 양성 문제

이 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일선 경찰관의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각 기능별 중요 이슈들을 정리한 것이다. 각 기능별로는 이런 이슈들이 발굴되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슈들은 기능이라는 칸막이를 넘어서 경찰 조직 전반에서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현안들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이슈들을 관련 주제별로 재정리하여 경찰 조직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에서 일선 경찰관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조직 외적 근무환경 및 행태 측면

경찰 조직 외부에서 일선 경찰관의 근무환경이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적 제언은 주로 경찰관의 자부심 문제와 제복에 대한 존중 등과 관련된다.

경찰 조직 외부에서 경찰을 보는 시선이 구성원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 경찰관 가족들의 심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사회에서 보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하는 것이 일선 경찰관의 사기 진작과 그에 따른 질 높은 치안 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1) 정책제언 1 - 일선 경찰관의 자부심 문제

현재 지구대에서는 유착비리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관내 단속대상 업소와는 업무 관련 전화가 필요할 경우 지구대의 유선전화를 사용하여야 하고 통화 후에는 그 기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적인 용도로 통화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체험자가 만나 본 일선 경찰관들은 “늘 듣는 지시이지만, 들을 때마다 경찰 전체가 비리나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하였다. 또한 “아빠가 경찰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 꼬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집사람은 나가서 남편이 경찰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다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특히 “그런 지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이 경찰을 보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하였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 진심을 몰라주고 알아줄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 기운이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찰관도 있었다.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저런 시선도 바뀌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모든 조직에는 소수의 문제아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들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문제 경찰 때문에 전체 경찰을 의심하고 매도하는 것은 극히 자제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찰 조직 자체도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정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은 정직, 봉사, 도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단속, 처벌, 규제, 비리, 진압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2 - 제복에 대한 존중 문제

경찰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09년에 발생한 용산 참사이다. 본 체험자가 인터뷰한 다수의 일선 경찰관들은 “우리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의 보상 내용을 알게 되면서부터 더욱 증폭된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2009년 1월 용산 4구역 재개발 현장의 남 일당이라는 건물을 불법으로 점검해서 농성 중이던 상가세입자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점거농성자 7명은 대법원에서 4-5년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유죄 판결과는 달리, 점거농성 사망자 5명에게는 35억원이, 그리고 경찰특공대 사망자인 고 김남훈 경사에게는 퇴직금과 보상금 명목으로 일시금 1억 3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고 김경사의 유족은 이런 일시금 외에 보훈 연금으로 매월 86만원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이러한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볼 때 남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불법으로 점거농성 하던 사람들에게는 7억이라는 큰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명령대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법집행에 앞장선 경찰에게는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현실은 우리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며, 앞으로는 어떤 경찰관도 국민과 사회를 위한 위험한 임무에 선뜻 나서지 않게 만들 것이다. 공무원 연금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직종별 공상급여 청구비율이 경찰(소방직 포함)이 43.1%로 나머지 일반직, 교육직, 기능직 공무원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관 공무상 사망자의 수는 전체 공무원 보다 1.7배 높고,公安 업무 공무원 보다는 약 3배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을 위하여 경찰의 리더들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가 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한 경찰관들은 경찰 조직이 책임지고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순직자 및 공상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생색내기식의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조직과 구성원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자신을 희생해가며 국민의 안녕과 치안 유지를 위해 임무 수행에 용감하게 나설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경찰관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경찰 및 경찰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 강화를 동반해야 한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MIU, Men in Uniform)은 그 제복이 주는 자부심과 명예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경찰과 제복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존경 혹은 인정감이 큰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2009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 폴(Harris Poll)이 170여개의 직업을 대상으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찰관이 7번째로 존경받는 직업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MIU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국가와 사회가 경찰의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존경과 사랑을 보여줘야 하고, 경찰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조직 내적 근무환경 및 행태 측면

경찰 조직 내부 차원에서 현장 경찰관의 근무환경이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은 크게 교육훈련 관련 문제, 인사 시스템 관련 문제, 복지제도 관련 이슈, 시설 및 장비 문제, 관할 업무 영역 이슈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 교육 훈련 시스템 측면

(1) 정책제언 3 - 경찰관 교육 제도 문제

일선 경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기적인 무도 교육과 사격 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과중한 업무, 밤샘 근무 및 그에 따른 피로, 인력 및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기적인 야간 근무라는 피곤한 근무 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으로 인해 휴식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교육이 경찰관 자신 보호 및 국민 보호라는 의도했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였다. 또한 응급 상황 관련 교육의 경우, 현재는 119 구급대원에게 주먹구구로 들은 지식을 약간씩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응급 처치 기본 교육은 일선 경찰관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확인해보니 각 경찰서 경비계에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각 소방서와 협조하여 재난구조교육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대 주무부서인 생활안전과가 주관하는 체계적이고 주기

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 경찰의 현실이라면, 선배 경찰과 후배 경찰 간의 유기적인 멘토링(mentoring)이나 현장에서의 교육(OJT, On the Job Training)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능한 선배 경찰관의 수사 및 업무 처리 등과 관련된 노하우와 현장의 경험을 전수받는 것은 공식적인 교육 이상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또한 공식/비공식적인 소규모의 교육/학습 관련 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해서 경찰 조직을 자발적인 상시 학습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도 현재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2) 정책제언 4 - 경찰공무원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문제

경찰관들은 항상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형사를 비롯한 경찰공무원은 범인을 체포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동료의 죽음이나 자신의 신체 손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접하기 어려운 살인, 교통사고, 가족 간의 동반자살에 따른 변사 사건 등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외상사건의 반복적인 노출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하 PTSD)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PTSD는 실제로 신체에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 즉, 타인의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신체적인 위협을 주는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 후 극심한 공포, 무력감 등을 느끼는 경우에도 PTSD로 발전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일반인구집단의 PTSD 유병률(일생에 한번은 이환될 확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1-6% 이내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8-9%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었다. 일생동안 인구집단의 30%정도가 외상사건에 노출될 수 있고, 이중 10-20%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박주상, 2011). 최근 5년간(2006-2010년)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 사고의 현황을 보면 순직이 75명, 공상자가 7,546명으로 나타났다. 순직의 원인을 살펴보면, 과로가 34명, 교통사고가 28명, 안전사고 7명, 범인피격이 4명으로 나타났으며, 공상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3,050명, 범인피격이 2,219명, 교통사고 1,776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순직의 원인으로는 범인피격이 네 번째이며 공상사고의 원인 중 범인피격으로 인한 것이 두 번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범인피격 및 동료 경찰관의 죽음과 같은 외상사건은 당사자에게 스트레스증후군으로 발전될 소지가 매우 높다.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와 생활 속에서 받

은 충격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수준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는 것은 대국민 정성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경찰관 본인의 정신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일차적 피해자 이상으로 여러 가지 충격적 사건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깊이 관여함으로써 누적된 스트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는 시민의 치안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중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개인, 조직 지역사회시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일차적 피해자들에 못지않은 관심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장애)에 대한 연구 및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 소방공무원과 철도기관사 및 PKO 파병 군인 등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연구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정책제언 5 - 교통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지금까지 교통경찰은 일상의 업무처리 인력을 양성하는데 치중해 왔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고급 교통 전문가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난이도가 높은 교통사고를 처리할 경우 민원인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중간 관리자 양성 실패, 비경력자의 잦은 유입으로 인한 업무상 혼선 발생, 현장 근무자의 고민을 해소해 줄 멘토의 부족, 교통 전문성에 대한 성과·보수 등의 메리트 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통 전문화 교육의 효과 분산, 전문화 수준을 인증하는 시스템 부재, 고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실무 경력을 조화시킨 단계별 전문화 과정을 마련하고 인증제를 시행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보직·수당·권위에 메리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최고의 교통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인사 시스템 측면

(1) 정책제언 6 - 주기적 야근과 피로 문제

일선 경찰관들은 "지구대 경찰 생활을 20년 정도만 하면 전에는 없던 심장이나 혈관 계통 질환이 생긴다"는 말을 하였다. 본 체험자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 농담이 아

나라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샘 근무로 인한 피로, 범죄에 대한 긴장,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 수치로도 알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통계에 의하면 2009년도에 사망 종결된 퇴직연금 수급자의 직종별 평균 연령이 교육직은 70.9세이고 일반직은 67.3세인데 반해 경찰직은 65.5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도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서울대학교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수면 효율 측면에서 교대(야간) 근무자군이 정상 근무자군보다 낮은 수면 효율 및 높은 수면 장애와 높은 관상동맥질환(고혈압, 심근경색) 유발가능성을 보였다고 분석되었다. 근무 시간 측면에서도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당 근무시간이 50~84시간으로 법정 근무 시간인 40시간 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 기준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500명으로 250~400명에 분포되어 있는 홍콩, 독일,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구대는 주기적인 밤샘 근무와 빈번한 신고 출동이 주 업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운동을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주기적인 밤샘 야근으로 인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업무를 낼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과다한 업무 및 주기적인 밤샘 근무는 가족들과의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경찰청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은 3교대 근무시 야근 일수가 365일 중 121일이고, 4교대 근무시에는 9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근무 일수의 경우 3교대시에는 총 116일의 공휴일 중 38일을 근무하였고, 4교대시에는 29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만한 가정생활이 원만한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찰관과 그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잦은 밤샘 근무로 인한 신체적 피로의 누적은 해당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로로 인해 양질의 치안 서비스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즐겁고 몸이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즐겁고 자상하게 대할 수 있는 법인데, 밤샘 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는 사람인 이상 친절할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지구대에 오는 시민들은 좋은 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단 불만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는 상태로 오게 된다. 따라서 누적된 피로에 찌든 일선 경찰관들과 감정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늘 상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무 형태 속에서 경찰관에게 초인적인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근무 형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7 - 공상에 의한 휴직기간 등에 대한 개선 문제

형사들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은 범인 검거시의 부상과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교적 많은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한 의료적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년 8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쳤을 때에는 법 제35조와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3년 동안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금년 6월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한은 완치시까지 연장 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2조는 공무원연금법상에 따른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70조에 의해 3년 후에는 면직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 할시 해당경찰관은 직권 면직된다. 면직될 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장애연금과 국가유공자연금을 받게 되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자신이 열정을 바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경찰관의 사기는 저하되고 업무 수행 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경찰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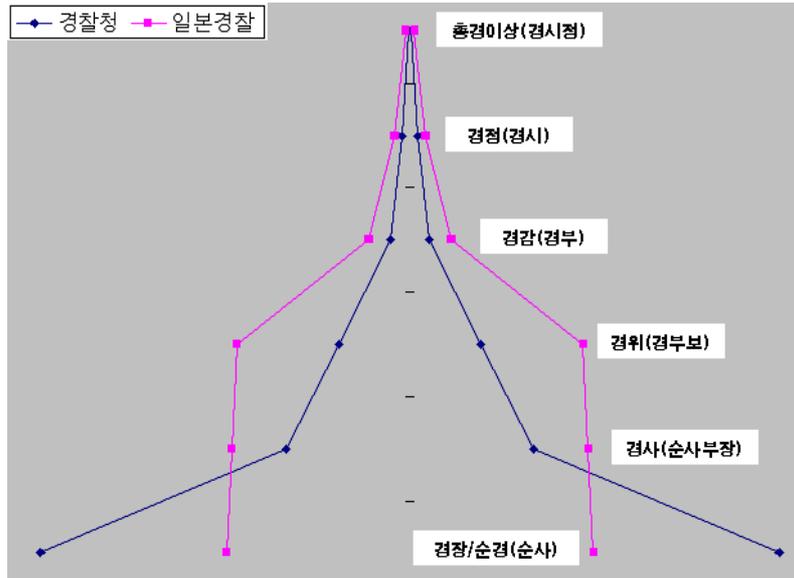
(3) 정책제언 8 - 승진 적체 문제

승진은 하위직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승진이 조직체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공무원 보수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권한이 상위직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공통적인 욕구와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는 승진에 쏠리고 있다(김중양, 1994: 100). 계급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조직 내에서 승진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승진은 결원보충의 불가결한 수단이며, 직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자기발전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다(김춘식, 2000: 195).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승진은 지위상승과 직업생활개선의 기회가 된다. 우선 보수가 인상된다. 그리고 직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부하의 수가 많아지고, 책임도 커진다. 또한 여러 가지 신분상징이 개선된다. 하지만, 승진이 장기간 적체될 경우 행정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현상이 생겨나며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찰은 일반직 9개보다 많은 11개의 계급구조가 하위직의 승진적체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²⁾ 특히, 경위와 경감 계급을 역지로 일반직에 맞추어 비교하면서 비롯

된 잘못된 인식이 기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6급에 2개의 계급이 책정된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뿐이다. 1979년부터 도입된 11단계의 계급구조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으로써 하위직의 승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순경 출신이 경찰서장직급인 총경까지 승진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반직은 6급까지 평균승진 기간이 17년이지만, 경찰은 6급인 경감까지 27년이 소요된다. 승진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계급제의 문제로 인해서도 기인되지만, 그 밖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현재 경찰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찰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추론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승진적체 현상이 심각하다. 둘째, 상위직, 특히 총경 이상 또는 경감 이상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통상 얘기되는 하위직 순경의 부족은 근속 승진제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일반직공무원도 공통되는 사안이며, 순경 입직자는 조직의 자연감소율(퇴직)이상의 소화할 수 있는 정원이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상적인 것은 계급 간 비율이 적정하여 어느 계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구조적 형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계급정년제, 복수직급제, 경감 근속 승진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계급체계 자체에 대한 조정방안으로써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계급의 확대방안과 경감이나 경장 둘 중 하나를 줄이는 축소방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계급체계 운영에 대한 조정방안으로써는 복수차장제 도입,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복수직급제 도입, 경무관 서장제, 경정·경감 등 중간관리계급의 확대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조직인력구조의 형태가 현재보다는 중간이상의 관리층이 좀 더 두터워지는 모양이 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조직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직 9급 서기보로 출발한 국가직 공무원의 직급분포와 순경으로 출발한 경찰공무원의 계급분포도를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직 국가 공무원은 4급 이상이 6.7%, 5-6급으로 재직 중인 비율이 36.3%, 7급 이하는 57.0%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반해 경찰은 4급 상당의 총경 이상은 0.5%, 5-6급에 해당하는 경정과 경감의 비율이 5.2%에 불과하고, 7급에 해당하는 경위 이하가 94.3%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승진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제반 문제는 다단계의 계급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부에서는 경위와 경감을 일반직 6급에 맞추어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명시한 법령은 없으며, 실제로 경위와 경감은 계급일 뿐이며, 일반직과 강제로 배분 비교하다보니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 한국경찰과 일본경찰의 인력구조 >



(4) 정책제언 9 - 복수 직급제 도입 문제

앞에서 살펴본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경찰조직에서도 복수직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복수직급제라는 것은 조직계층상 동일수준의 직위, 즉 보직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종래 공무원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수직급제는 이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복수직급제를 허용하고 있다. 타 행정기관의 경우 3-4급, 4-5급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시행하여, 정책기획기능을 보강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계급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경찰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부족한 정책기획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승진적체를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공직분위기 쇄신 혹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명분으로 복수직급제 도입을 검토한 것은 1993년이였다. 이 때 정부가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과장-계장급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으로 임명하게 되어있는 과장과 계장의 경우에 주무과장과 주무계장에 한해 부이사관(3급)과 서기관(4급)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3급 승진이 가능하고, 계장으로 있으면서 4급 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복수직급제 도입의 취지는 무엇보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

반직공무원의 경우 본부 3-4급 정원의 33.3%, 소속기관 3-4급 정원의 10%를 상위직으로 복수직급화를 완료하였으나, 경찰의 경우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소방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럴 경우 예산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여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상위직이 타 공무원들과 비교해 매우 적은 열악한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찰조직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었다.³⁾ 전체 경찰관 중 총경이상이 0.5%(일반직의 경우 서기관 이상 3.5%)로 상위직이 현저히 낮아 계급정년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승진적체가 심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곤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경찰 계급체계에 있어서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찰 현원분포의 문제에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경찰계급체계에 있어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복수직급제의 계급으로써는 일반직공무원의 3.4급으로 칭해지는 것과 대비하여 경무관과 총경의 중간의 계급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일반직공무원의 4.5급으로 칭해지는 총경과 경정의 중간의 계급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될 경우 본청 및 지방청의 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중간관리계층의 보강으로 치안정책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에서 칭하는 것과 같이 3.4급(경무관과 총경 사이), 4.5급(총경과 경정 사이)로의 승진기회 확대로 승진적체 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계급체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찰의 특성상 명령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계급체계가 상향되는 것으로써, 중간 계급의 확대가 불가피해져 또 다시 기형적인 인력구조의 형태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 업무의 특성상 실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아야 하나 관리층이 많아져 경찰업무의 특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복수직급제의 하나로서 경무관 서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총경 계급인 일률적 서장직급을 경찰서별 치안수요와 관서장의 통솔범위(기관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부기관장의 직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구분에서 2급과 3급 기관을 경무관 서장제, 4급 기관을 총경 서장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관할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치안수요 및 통솔범위(평균 600명)가 과중한 경찰서의 서장직급을 경무관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개 자치단체를 2~3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25개 자치단체)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3)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소방관, 국정원 등은 경찰과 사실상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인사적체가 극심하며 명령체계가 일사분란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경찰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해 시 전체를 총괄하는 중심 경찰서를 두고, 나머지 경찰서는 구역본부 개념으로 운영하면서 중심 경찰서의 서장을 경무관급으로 보임하는 방안이다. 즉, 대도시 등 치안수요가 과다한 경찰서의 서장을 경무관으로 조정하고 경무관 서장 하에 총경 부서장을 운영함으로써, 치안수요가 과다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경찰서장 직위에 경무관에서 총경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효율적·탄력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정책제언 10 - 경위 정원의 현실화 문제

경찰 조직에서 경위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계급이다. 특히 수사 분야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장에서의 상황 판단과 전문적 지식 등이 필요한 계급이다. 최근까지는 경위까지 근속 승진이 가능했으나, 2011년 6월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경감까지 근속 승진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경감까지 승진하는데 종전보다 총 2.5년 정도가 단축되었다. 문제는 경위까지의 근속 승진으로 인해 경위 현원과 정원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경위의 경우, 2011년 현재 정원이 10,516 명인데 반해 현원이 28,795 명으로 17,254 명이 정원 초과 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속 승진의 경우, 승진한 사람은 직전 계급의 정원으로 계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위로의 근속 승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경위 계급의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재 근속 승진을 제외한 승진 인원은 정원에 결원(상위계급으로 승진, 퇴직 등)이 발생할 때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 능력 있는 경찰관이 근속 승진 이외의 승진(심사, 시험, 특진 등) 방법으로 경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좁아진 상황이다. 이는 경찰관 자질의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근속 승진은 경찰관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제도이고, 이와 동시에 근속 승진의 취지를 살리면서 유능한 경찰관이 능력껏 승진할 수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경위 정원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6) 정책제언 11 - 경정, 경감 직급 조정 문제

경찰조직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전체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직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장집행 업무가 많은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업무가 많은 국세청과 비교해 보면, 국세청은 6급 이상이 32.3%, 경찰은 경감

(6급) 이상이 5.8%에 불과해 직급별 인원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직급구조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보수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하위직에서 중간 관리층(경정, 경감)으로 진입하는데 극심한 승진적체를 겪고 있어, 능력 있는 경찰공무원들마저도 도태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8급 5명을 모집하는데 경찰공무원 217명이 지원하였다. 즉, 경찰조직의 승진적체를 반증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급구조의 문제는 비단 승진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공무원에 비해 비슷한 직급으로의 승진이 늦어지거나, 더 이상 승진을 못하면서 보수와 연동되는 연금에서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있어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현재 경찰관 사기저하의 주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승진.보수.연금 등에서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지만, 그 근저에는 기형적인 직급구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관리자 정원을 늘리는 경정.경감 직급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약 1천여 명의 경위를 경감으로 직급조정을 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에 약 4백여 명의 경감 직급조정분이 반영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에는 경감의 정원이 5천여 명에 이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당장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6년 경위근속 도입으로 인해 향후 수년 내에 경위 인원이 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정, 경감 정원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차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일할 맛이 떨어지고, 경찰조직 전체가 흔들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7) 정책제언 12 - 타 부처와의 직급체계 불평등성 문제

지구대·파출소와 유사하게 읍-면-동 등 하부집행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경찰의 직급체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이의 예로서는 읍.면.동장도 “경정”에 상당하는 5급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낮은 직급으로 타 기관과 업무협조 시 애로도 많다. 심지어 각 지방경찰청장(2급) 및 경찰서장(4급)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지사, 광역시 부시장은 1급, 부군수는 4급, 부구청장은 3급)보다도 직급이 낮아 원활한 업무협조가

곤란한 실정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법무부 산하의 1개청에 불과함에도 경찰청장과 같은 직급인 차관급 검찰간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44명이나 된다.⁴⁾

이에 반해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수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지방경찰청장 직급은 서울, 경기, 부산(2012년)은 치안정감으로 1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 외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2급 상당으로 대우받고 있다. 또한 인원 면에서 경찰과 비교도 되지 않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도 1급 공무원 보직이다. 2008년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장·차관 대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약 120여명으로 이중 경찰청장도 포함되겠으나 업무비중과 인원, 조직 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낮은 직급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격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수준인 1급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타 유사 기관과의 직급체계 불평등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보정시킴으로써 해소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조직의 계급체계를 경감 이상부터 1계급씩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치안총감부터 경감까지가 모두 계급이 승격됨으로 인해 조직의 인력구조가 어느 정도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조직원의 사기가 향상되고 조직간 업무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경찰계급체계 확대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기존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의 치안업무는 국방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은 2011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원인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⁵⁾ 이 방안을 실현시킴으로써 경찰조직 전반의 위상이 높아지게 될 뿐 아니라 계급상승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낮은 직급으로 타 기관과 업무협조에서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직규모나 업무비중에 비해 지휘부나 실무인력의 직급이 너무 낮아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직 위상저하에 따른 실망감으로 사기침체 및 조직전체의 무기력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8) 정책제언 13 - 교통 경찰관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개선 문제

타부서 소속 경찰관에 비해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경찰관은 성과 평가에서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과 평가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성과 지표 중심의 실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통 경찰관의 경우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교통사고 사망률 등이 개인 실적과 부서실적, 기관실적

4) 법무부 소관 법무연수원장도 차관급 검사가 맡고 있으나, 대검찰청의 차관급 정원에서는 제외하였다.

5)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을 제외하면, 경찰청이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에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성과 평가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근무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사와 동료의 정성평가로 전환하여 성과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첫째 성과 지표 달성에 의한 평가에서 상사·동료의 포괄적인 정성 평가로 전환, 성과를 가장 잘 아는 다수의 사람에 의해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둘째 평가 결과에 공감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평가 방식 도입, 셋째 구성원 모두가 평가자로 참여함으로써 성과 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교통경찰 평가의 어려움은 교통량 등 교통수요가 지역별, 시기적으로 무척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악천후 등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근무한 교통경찰이 일한 만큼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이 내부적 공감대 위에 자리잡아 이를 바탕으로 국민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9) 정책제언 14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체험자가 만나본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들은 비선호 부서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 경찰관에 비해 포상이나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하여 뺑소니 사고 전담반 소속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고충을 토로했다.

“저는 이 업무를 비교적 오랫동안 해왔고 제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뺑소니 사건 수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뺑소니반을 포함한 교통사고 조사부서는 경찰관들이 그리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업무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과의 경우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등 5대 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일은 고되지만 그만큼 경찰 내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뺑소니반이나 교통조사계가 담당하는 교통사고는 5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각종 포상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찰관은 2005년 이후 뺑소니 전담반에서 근무하면서 약 10여건의 뺑소니 사망사건을 해결하고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포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건 역시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살해자를 검거하는

사건이며, 어떻게 보면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뺑소니 사건은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건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 해결에 비해 뺑소니 사망사건의 해결은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관할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복지 정책 측면

(1) 정책제언 15 - 경찰관 보수 및 수당 문제

보수 체계는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능력과 실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 구조로 설계되어야 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정성(공평성, equity)에는 대내적 공평성과 대외적 공평성이 존재한다. 대내적 공평성(internal equity)은 동일한 업무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의미하며, 대외적 공평성(external equity)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과의 공평성을 의미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 중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먼저 대외적인 공평성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교정.보호, 검찰사무, 출입국관리, 철도공안직 등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이하 공안직)은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일반직공무원보다 직급별 평균 약 5% 정도 기본급을 우대받고 있는데, 경찰은 공무원 조직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면서도 공안직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공안직에 비해 경찰관들이 잦은 휴일/야간 근무와 돌발적인 비상근무,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기본급은 일반직보다 1.7% 정도 우대받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많은 경찰관들이 타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날로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경찰관에 대해 일반직 대비 최대 23~25%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고, 영국은 경찰관들에게 각종 수당을 충분히 지급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도 24시간 365일 주야 구분 없이 위험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기본급을 우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안직과 같은 수준으로의 인상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찰관 보수인상은 그들만을 위한 사기진작책이라기

보다는 그들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대내적인 공평성과 관련하여,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 양, 질 등에 대한 차별적인 고려 없이 동일 계급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특히 강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업무를 바쁘게 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보수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골 지구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그 결과, 과거와는 정반대로, 지방청에서 서울청으로 전출하는 것은 인기가 없어 금방 가능한데 비해, 서울청에서 지방청으로 전출하는 것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굳이 물가 비싼 곳에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힘들게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양, 곤란도/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고안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검사, 법관의 경우 보수에 관한 개별적인 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 체계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와 더불어,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문제도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경찰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있다.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은 최근 들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과도한 업무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교대근무자는 월 근무시간의 절반을 야간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수당으로 월 17만 여원(경사 10호봉 기준)만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 수면부족, 생체리듬 파괴, 평일/휴일 구분 없는 근무, 가족/친구와의 교류 불가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수당 제도가 교대근무수당이다. 우리나라 경찰 정원의 70%에 가까운 7만 여명의 경찰관이 24시간 공백 없이 치안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대근무가 근무자의 생체리듬을 파괴하고 각종 질환을 유발하여 평균 수명을 단축한다는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한다. 핀란드 노동건강연구소는 교대근무자에게는 중년 이후에 두뇌능력 퇴화 및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주기 파괴가 장기에 질환을 발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의 던저스 박사는 교대근무자는 위궤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배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뉴욕 주립대 바이올린티 교수는 경찰관 같은 교대근무자는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 흔히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밤낮이 수시로 바뀌어 신체적 고통이나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찰 같은 교대 근무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

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대근무 기업인 POSCO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대근무 수당 같은 제도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경위까지는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방지책으로 일정 연한이 충족된 대상자는 다음 상위 계급(예: 경위의 경우 경감)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1년 6월에 경찰공무원법이 개정(주요 내용: 경감 근속승진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위 이하 계급의 근속승진 기간을 총 2.5년 단축시킴)되면서 경감 이상의 계급에 대해서도 이 대우공무원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16 - 교통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 문제

교통 경찰관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하나로 용변을 해결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올해 초 서울 종각역 사거리에서 출근길 교통 소통을 위해 신호기 조작을 하던 경찰관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10분 넘게 신호가 바뀌지 않아 교통이 혼잡을 빚은 일도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키던 신호등을 켜 놓은 채 급한 볼일로 화장실에 간 교통경찰의 실수로 잠시 동안이지만 출근시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이 같은 황당한 상황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경찰의 '다급했던 사정'을 다소나마 이해해 볼 소지가 없지 않다.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당장 교대자도 없는 가운데 화장실로 곧장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도 인간인지라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겪는 것은 여느 시민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더구나 도심지에서 화장실을 찾기도 용이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교통경찰은 출근길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꼭두새벽에 화장실조차 제대로 다녀오지 못하고 길거리에 뛰어 나와야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도시의 일반 건물 화장실은 거의가 잠금장치가 돼있어 열쇠 없이는 '볼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교대자 없이 담당 경찰관을 혼자 배치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워에 교차로 신호등마다 2인 이상의 경찰을 배치할 만큼 우리나라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4) 시설, 장비, 예산 측면

(1) 정책제언 17 - 청사 노후화 및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

본 체험자들은 역삼 지구대에서의 본격적인 체험 전에 논현 1파출소와 청담 파출소

도 방문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논현 1파출소는 강남의 대표적인 먹자 골목과 술집 등을 포함한 유흥 업소, 원룸/투룸 등의 다가구 주택,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한 단독 주택 단지로 구성된 복합적인 지역을 관할하는 중요한 지구대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하지만, 논현 1파출소의 시설을 직접 목격한 체험자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같은 강남경찰서 관할에 있어도 논현 1파출소의 경우 역삼 지구대 와는 공간과 시설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함 그 자체였다. 논현 1파출소는 우선 건물 자체가 너무나 낡았고(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벽에 균열이 너무 많이 존재해서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였다), 파출소 공간 자체가 아주 협소하여 팀원 전체가 동시에 다 앉을 수 있는 책상이나 의자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2층에 있는 구내식당은 없는 공간을 억지로 쪼개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식탁 하나만 구비되어 있었으며, 개인 사물함인 로커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공간이 부족하였다. 규정상 야간 근무 중 돌아가며 1-2시간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구대는 실제로는 논현 1파출소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피의자/피해자 대기 장소 역시 너무나 협소하여 양자가 충분히 분리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자의 충돌로 인한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돌발적인 상황은 2차적인 범죄나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사 시설 확충을 통해 시급하게 예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공간 부족, 시설 낙후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 논현 1파출소 바로 뒤편에 최신식으로 건축한 지자체 건물이 있는데, 현재의 지구대 건물을 포기하고 신축 건물에 공간을 빌려 입주하고자 시도했지만 경찰 소유 건물이 아니어서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청사 노후 및 공간 부족은 강남경찰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축 건물의 필요성은 늘 느끼면서도 예산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 신축을 확정하고 조만간 신축 공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 대구 수성경찰서의 경우 27년 된 노후한 건물을 사용한다. 형사과의 경우, 사무실이 2개로 분리되어 있다. 형사과장실, 형사지원팀, 강력범죄수사 1-5팀이 근무하는 큰 사무실의 출입문은 유리로 된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전기, 팩스 등 각종 기자재들이 들어가 있다. 반면에 6-8팀이 근무하는 작은 사무실에는 일반문으로 되어 있으며, 기자재는 에어컨, 복사기, 정수기가 전부이며, 장소 또한 매우 협소하다. 특히 출입문의 경우 일반적인 철문으로 되어 있어 철창 등의 시건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범죄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팀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조차 없다. 또한 각종 수사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팩스와 무전기 등이 큰 사무실에 있어 작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6-8팀은 수시로 큰 사무

실을 왔다 갔다 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서에 대한 증축 공사와 함께 기자재에 대한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형사과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주로 사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는 곳이다. 수성경찰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형사과는 팀별로 책상이 여러 줄로 배치되어 있을 뿐, 팀별로 파티션이나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물론 사건 관련자들의 난동이나 자해 등을 방지,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형사과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로서, 이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들의 초상권 등 인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정한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부정적 소문이 또 다른 피해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과 내에 진술 녹화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건과 조사가 폭주할 경우에는 사용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진술녹화실의 확보가 필요하다. 예산의 제약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는데, 구성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청사, 특히 지구대(파출소), 신축이나 개축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성원에게는 최적의 근무 환경이 제공되어야 사기가 증진되어 열심히 근무할 동기부여가 되는데, 낡고 협소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면서 꼭 참고 일만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으로 판단된다.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게도 양질의 근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애초부터 주민센터와 지구대 건물을 같은 장소에 나란히 건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광진 경찰서 화양 지구대 청사는 주민센터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다. 주민센터의 경우 야간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휴식 공간이 부족한 야간 근무 경찰관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제언 18 - 경찰관 장비 문제

일선 지구대 경찰관에게는 38구경 권총, 삼단진압봉, 전기 충격총, 수갑 등이 보호 장비로 지급되어 허리에 휴대하게 되어 있는데, 무전기까지 합하면 총 7kg 정도를 휴대하는 셈이다. 본 체험자는 안전상 권총과 전기 충격총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을 허리에 휴대하고 순찰 업무에 임했다. 일선 경찰관보다 장비를 덜 휴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니 어깨 부분이 누르는 듯이 아파오고 저려왔다.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허리까지 아주 빠근해지고 온 몸이 저린 것 같은 느낌이 심하게 들

었다. 일반인은 과연 이 장비들을 허리에 차고 몇 시간이나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매일 이 장비들을 몸에 지니고 순찰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한다. 따라서 이 장비 무게로 인해 현실적으로 도둑이나 절도범을 추격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고려는 없이 경찰관이 달리기를 못해서, 적극적으로 못해서, 혹은 몸을 사려서 도둑을 놓쳤다는 등의 비난을 늘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경찰관의 애환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이다. 우선은 장비를 좀 더 가볍게 해 주면 신체적인 피로 및 범죄자 추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구대 경찰은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112 사건 신고들에 대한 상황을 살펴본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경찰 휴대폰 조회기는 옴니아인데, 단말기 자체가 작고 또한 구형이라 오작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최신식 단말기나 사이즈가 큰 태블릿 PC로 교체해 준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동시에 지구대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는 순찰차에 대한 관심도 환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아반떼 급의 순찰차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건장한 경찰관 두 명이 하루 종일 탑승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은 것이 사실이다. 순찰차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에게 사무실과도 같은 존재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근무 환경 개선 차원에서 좀 더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차량을 보급해주면 피로도가 줄어들고 그 결과 더 나은 업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좁은 골목길 등을 고려하여 경차 순찰차도 도입하고 있지만, 순찰차가 범죄 예방 및 치안 확보를 위한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보다 큰 사이즈의 순찰차는 경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의 경우에도 수사 차량의 다양화 및 증차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형사과의 8개 팀 중에 전날 당직팀과 즉응팀이 오전에 쉬기 때문에 팀별로 차량이 1대 정도씩 돌아가지만, 팀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기존에 형사과에 보급된 차량이 모두 봉고차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봉고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만 보아도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수사 활동을 하는 형사들에게 보급되는 차량은 획일적이기 보다는 소형, 중형, SUV형, 봉고형 등 다양한 종류의 비노출 차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평상시 2명이 조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과의 수사차량을 봉고형의 대형차량이 아닌 소형, 중형으로 다양화하여 연비 및 탄소 배출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

는 녹색성장에도 부합될 될 것으로 보인다.

(3) 정책제언 19 - 형사 보호 장구에 대한 개선 문제

형사들은 흉악한 범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무기로 권총이 지급되며, 방검복, 삼단봉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범인 검거를 위해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또한 방검복의 경우에도 현재 보급되어 있는 조끼형은 범죄자들에게 내가 경찰이라는 알려주는 껍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는 형사들이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섬유기술이 발달하여 일반 옷과 같이 얇은 소재로 방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강력 섬유로 된 아라미드 소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아직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형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범의자 검거 현장에서는 삼단봉이나 맨몸으로 범의자를 검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이저 건 등이 지급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범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제언 20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관련 예산 확충 문제

오랜 기간 교통 분야에서 일해 온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순천시 외곽에 있는 황전 구례 방향 도로의 경우, 과거에는 연 1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이후에는 사고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사고예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교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오직 도나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만 확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 교통표지판, 교통신호기,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차선도색 등에 보다 충분한 예산이 집행된다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정책제언 21 - 수사비 현실화 문제

수성경찰서 형사과는 매월 약 900만 원 정도의 수사비가 지급이 된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수사비는 56명의 형사들이 사용할 경우, 1인당 약 16만원 정도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하루에 많게는 1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한 사건 당사자와 참고인들을 만나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차나 식사를 사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검찰의 수사비는 많게는 경찰의 34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9년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202만 553건이지만, 이를 위해 지원된 수사비는 총 420억 원이다. 이는 형사사건 1건당 2만 795원이 배정된 것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사건 1건이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수십 명의 사건 관련자를 만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선의 형사들은 차량유류비, 통신비, 수사정보비 등을 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수사비 예산은 결국 형사들의 수사 의욕을 저하시키고 수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2009년도 범죄수사여비로 책정된 예산이 총 839억 4,600만원이었으며, 이중에서 822억 7500만원을 사용하고 16억 9,9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항목은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6억 원이 증액 된 것이지만, 나중에 정부에서 예산의 10%를 감액하는 방침에 따라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사비의 예산의 증액 등 일선의 형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수사의 질도 높아지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경찰이 될 것이다.

5) 담당 업무 측면

(1) 정책제언 22 - 주취자 문제

본 체험자들은 총 일주일 정도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형사과 및 교통과의 업무들을 체험해 보았다. 이러한 생생한 체험과 관찰을 통해 일선 경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선의 평범한 경찰관들이 정말 힘든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점과 술 취한 주취자와 관련된 업무가 일선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주취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술'을 아예 없애버리면 일선 경찰관들의 할 일이 반으로 줄어들겠다 라고 까지 생각했을 만큼 큰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주취자들은 본 체험자에게는 아주 심하게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경찰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온순한 편이라고 하였다. 조선일보 2011년 5월 7일 기사에 의하면, 지난 4월 초 서울역 파출소에서는 술 취한 노숙자가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는 파출소 입구에 용변을 보는 바람에 악취로 한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한다. 또

한 작년 9월에는 전주의 효자파출소에서는 여경이 술 취해 행패를 부리던 여성으로부터 귀를 물어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 서울 흥익지구대에서는 만취해서 싸움을 해서 지구대로 끌려 온 20대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자해 소동을 벌였다. 본 체험자가 강남경찰서 형사과를 체험했던 날에도 술 취한 여성이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의자에 앉게 하려 하던 여경의 팔을 할퀴어서 피가 나서 경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검거된 주취자는 1,689명에 달한다고 한다. 매일 21명 정도의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도가 극히 심해서 검거된 경우만을 의미하며, 검거까지 가지 않는 주취자 난동을 포함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취자의 지구대 난동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에서 술 취해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이해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관들이 어지간한 난동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당하기 쉬운 무기나 진압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참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난동의 강도가 극히 심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12,593명이 검거되었고, 그 중 1,303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536건이 기각되어 41.1%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8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주취자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여력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예를 들어, 일본과 같이 주취자 안정에 관한 법률의 도입, 실제로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용 매뉴얼 제공 등)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23 - 업무 관할 문제

이번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경찰은 담당하는 사무에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점이다. 구청, 시청, 소방방재청 등이 관할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와 관할 영역이 불분명한 업무 그리고 관공서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들은 모두 경찰의 관할 업무인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

면, 현재 주정차 단속 권한은 구청에 있으며, 견인차를 비롯한 견인 장비 역시 구청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간에는 구청에 연락해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구청 직원들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도 경찰로서는 마땅히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은 경찰에 대해서만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주야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112로 신고를 한다. 물론 야간에는 본인의 문제가 어느 관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택시 승차거부, 주차문제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경찰은 묵묵히 싫은 내색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이러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없기에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설정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경찰의 고유한 업무와 구청 및 시청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체험 중 인터뷰한 한 여경은 "지역 케이블 방송 하단에 경찰과 다른 관공서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한 자막 광고를 하면 경찰력의 분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제안해 주었다.

(3) 정책제언 24 - 담당 사건의 과중 문제

형사들은 주로 당직 근무 중에 배당되는 사건이 많다. 간단한 폭력 사건에서부터 강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1일 당직 사건이 형사 1인당 50건이 넘는 경우도 있으며,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16건 정도의 당직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순천경찰서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들의 1인당 사고처리 건수는 연평균 360여건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휴일을 포함해서 1년 내내 거의 매일 1건씩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조사 업무의 경우, 사고 당시의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사고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아 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의 업무 과다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경찰관 1인이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사고 처리 건수는 7-8건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현재 순천경찰서 교통조사계의 경우 경찰관 1인이 매월 3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경찰관들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

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건 처리하나가 수많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뒤로 하고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날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 중 단순 폭력(상해)사건에 대한 처리반을 생활안전과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수사경과제도 상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발생하는 당직사건들을 경찰서 형사과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기존의 형사과 일부 인력을 지방청 광역수사대로 배치하여 강력사건, 발생사건, 기획수사 등을 총괄하는 개편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선 지구대 야간근무에 형사과 당직팀 조사요원 1명, 교통사고 조사팀 1명씩 배치되어 지구대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지구대 조사 이후 형사과 또는 교통과에서 2차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경찰업무에 보다 편리함을 느낄 것이다. 더욱이 경찰서 내부적으로 사건처리문제를 가지고 형사와 지구대간의 반목도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당직 사건들 중 상당 부분이 단순폭력(또한 경미한 상해)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순 폭력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사건 당시의 흥분 또는 주취 상태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며칠이 지나면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10일 정도의 조정기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일선 지구대 및 형사과 업무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당시의 흥분 상태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실적주의에 대한 형사들의 불만은 높았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4대 범죄에 대한 단순한 발생, 검거를 수사 인력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방식은 일선 형사들에게 비교적 쉬운 수사만을 쫓아가도록 만들었다. 얼마 전 개봉한 '체포왕'이라는 영화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를 절도범으로 입건하는 장면이 나온다. 비록 영화의 한 소재이나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올해 경찰청에서 형사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실적건수 위주의 단순 정량평가에서 탈피하여 단순실적 비교를 금지하고, 성과보고서에 사례, 정책, 실적, 숫자 등 경찰서에서 작성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정성적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편한 것은 국민을 위하여 긍정적인 변화이다. 경찰의 이러한 변화로 국민의 요구가 성과로 이어지고 성과가 국민의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발전되었으면 한다.

(4) 정책제언 25 - 경검 간 견제와 균형으로 본 경찰의 수사주체성 확보 의미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을 반영하고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수사는 약 98%를 경찰

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검찰의 권력분산과 견제차원에서 60여년 만인 2011년 6월 30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 등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검·경 간의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1월 24일에 검·경 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검찰의 입장만을 고려한 국무총리실의 직권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며, 12월 22일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이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7일 국무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결국, 검찰의 개혁과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시작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의해 그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일선 경찰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행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경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의 내용 중 수사 중단, 송치 지휘, 입건 지휘, 내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수사권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자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수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정책제언 26 - 경찰관 안전 문제

2011년 5월 1일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 파출소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40대 남성이 파출소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면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하던 이 남성은 해고된 것에 대한 분을 풀지 못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김밥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 사건 당시 근무 중이던 58세의 팀장 전모 경위는 흉기를 피해 도망갔다(본인은 난동자를 제압할 도구를 찾으러 갔다고 해명하였음)는 비난을 받았고, 같이 근무하던 40세의 허모 경장은 난동자가 외부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난동자를 파출소 안에

가두어 놓고 파출소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왼팔을 칼에 찔려 2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얼마 후 다른 동료 경찰관 및 시민들과 합세하여 난동자를 제압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일선 경찰관들이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히 긴급하고 돌발적인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치안통계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2010년 기준으로 총 579,751건이 발생하여 거의 1분에 1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1,252건으로 약 7시간마다 1건씩, 폭력은 292,466건으로 약 2분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경찰관의 업무환경은 위험 그 자체이다. 위의 난우파출소 사건을 온 몸으로 막은 허경장은 당당한 체격에 복싱까지 연마한 경찰관이었지만, 본인조차 “웬만한 일대일 대결은 자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처음으로 새빨갳게 충혈된 살기 가득한 눈과 칼을 대하니 솔직히 겁이 나더라”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조선일보, 2011년 5월 7일).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는 경찰이다. 제복 입은 값을 해야 한다”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용기를 내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더 이상의 피해는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실의 범죄와 범죄자는 나날이 거칠고 폭력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폭력을 다루어야 할 일선 경찰관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피곤한 밤샘 근무와 폭주하는 치안 수요로 인해 제대로 된 신체 단련이나 무술 교육이 어려운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지구대 인력의 노령화 문제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체험자가 만나본 한 경찰관의 이야기처럼 “나는 도망간 전모 팀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라도 그 경우에 허경장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괜히 나서서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경찰 조직조차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을 텐데...” 라는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에게도 너무나 부담되는 중대한 이슈이다. 이 사건 이후 필요한 위급 시에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지휘부에서는 재차 강조하였지만, 1분 1초가 위급한 현장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필요성 및 보충성 같은 요건들을 고려하면서 달아나는 범죄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제외한 부분에 정확히 조준해서 발사하라는 것은 전문 저격수도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요구나 마찬가지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적법한 총기 사용이라도 그 이후 받게 되는 비난은 상상을 초월하고, 총기 사용 후 받게 되는 청문감사관실 같은 경찰 내부의 조사와 징계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경찰관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총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하게 될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구상권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총기의 사용은 거의 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한다.⁶⁾ 물리력 행사 방법이나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과 같이 범죄자보다 한 단계 더 상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Step by Step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 조직이 나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든든한 방패막이와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경찰관들이 오해하고 있는 감찰조사나 구상권 피소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우려를 이러한 조직과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 없이는 어떤 경찰관도 조직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도 위험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단속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단속 경찰관은 도로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처지에 놓인 만취 운전자가 도주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입히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경찰관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중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차량이나 자신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거나 순직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6) 정책제언 27 -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문제

2009년 기준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 67.3%, 화물차 13.5%, 승합자동차 7.3%, 이륜차가 6.5%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와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화물자동차가 21.0%, 이륜차가 14.2%를 차지해 자동차 등록대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와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7) 정책제언 28 -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 처리 절차 개선 문제

교통사고 민원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청문 기능에서 교통민원(조사관 교체 포함)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악성민원에 의한 부당한 조사관 교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의 사기 저하 및 사고 상대 민원인의 피

6)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직무상 범인검거 등을 이유로 한 총기사용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는 단 한건의 사례도 없다

해 발생으로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통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이의민원을 처리토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민원 처리팀의 운영, 교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VI. 결론

경찰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아울러 수사 및 범인 체포 등 법을 집행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경찰이라는 직업은 항상 위험성, 돌발성, 긴박성, 스트레스 등 다른 직업에 비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형사사법체계의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법집행 및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선의 지구대(파출소), 형사, 교통 등의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실태 및 행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경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일선 경찰관들과 동일하게 밤샘 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근무 행태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지구대, 형사, 교통 등의 업무를 파악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범한 일선 경찰관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고민과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참여관찰 등의 체험 결과, 대부분의 현장 경찰관은 연구진이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임무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일선의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과 사회가 진심으로 인정해 주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일선 경찰관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 중의 다른 하나는 일선 경찰관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번 체험을 통해 파악된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및 행태와 관련된 고민 및 애로 사항을 각 기능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대(파출소) 기능에 있어서는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분리할 수조차 없는 낡고 협소한 지구대 청사 문제,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신과 가족의 자긍심 문제, 전문화 되는 범죄 등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는 처

단장비 부족의 문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선 경찰관의 안전 문제, 주기적 야근과 그로 인한 피로와 수면장애 문제, 인원 부족과 피로로 인한 교육의 내실 부족 문제, 우리 사회의 술에 관대한 문화로 인한 주취자 문제, 경찰관의 보수 및 수당 문제, (특히 야간 근무시) 할 일이 너무 많은 지구대의 관할 업무 및 인력 문제, 제복에 대한 사회의 존중 부족 문제 등을 가장 큰 고민 및 애로 사항으로 들고 있었다. 둘째, 형사 기능에서는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실 협소 및 시설 부족 문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담당 사건의 과중 문제, 공상에 의한 휴직 기간 문제, 복수 직급제 도입 문제, 경위 정원 현실화 문제, 수사 차량에 대한 다양화 및 증차 문제, 경찰 공무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관리 문제, 수사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 문제, 경찰 조직의 승진 적체 문제, 경정/경감의 직급 조정 문제, 타부처와의 직급 체계 불평등성 문제, 수사비 현실화 문제, 형사들의 보호 장구에 대한 개선 문제 등을 고민 및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셋째, 교통 기능에서는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 내 처우 개선 문제,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의 업무 과다 문제,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의 사고 위험에의 노출 문제, 교통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 문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문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관련 예산 확충 문제, 교통사고 처리 이의 민원 절차 개선 문제, 교통경찰 성과 평가제도 개선 문제, 교통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구대, 형사, 교통 업무에 대한 체험에서 도출된 이슈들은 경찰 조직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로 경찰 조직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조직 외적 차원에서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제복에 대한 사회의 존중 문제 등이 핵심이고, 조직 내적 차원에서는 인사 시스템, 복지 시스템, 교육훈련 제도, 시설 및 장비의 보강제, 담당업무 과중 문제 등이 해당된다. 이 체험에서 파악된 일선 경찰관의 다양한 고민 및 애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현장 경찰관의 근무 여건 및 환경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선 경찰관의 사기 및 자긍심을 증진시켜 결국에는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직접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경찰관은 경찰의 얼굴이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여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경찰관에게 보다 개선된 근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백서」, 2010.

김중양, 「신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8.

김춘식, 「행정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0.

박주상, “경찰·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지방
자치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